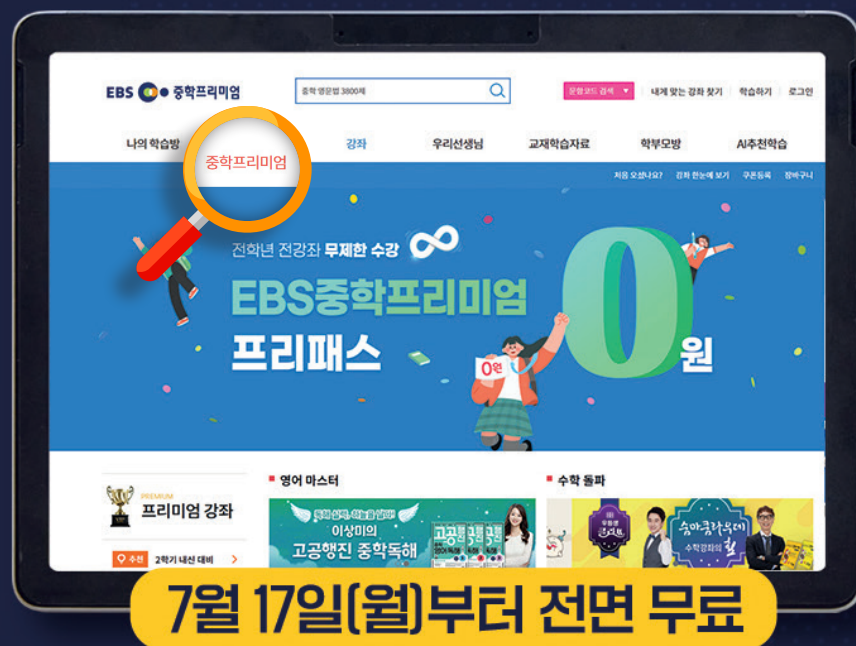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로 수강하세요!



- ➡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연간 7만 원 상당 'EBS 중학 프리미엄 프리패스' 무료 이용
- ➡ 교과서, 시중 유명 학습 참고서 기반 강좌 등 약 3만 편 수강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EBS 중학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행복한교육

08

vol.493 2023 AUGUST



02 네 꿈을 펼쳐라

포항 한국해양마이스터고 海화랑원정대
요트 타고 독도까지 250km!

06 에듀피플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보상'보다 '예방'에 초점
촘촘한 협력망으로 안전한 학교 만든다

50 진로직업인

축산물품질평가사 박인선 KAPE 팀장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제공,
국민 건강 책임지는 일!

COVER STORY

교육부는 올해 5월부터 소방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도서·읍면·도시외곽지역 학교를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위치한 초성초등학교(교장 이춘석) 학생들이 안전체험차량에서 체험을 하고 소방관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발행일 2023년 8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편집인 대변인 김천홍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신광수
사무관 배선연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객원)김혜진, 서지영, 이경화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8 조양빌딩 본관 5층
(주)전우용사촌
www.happyedu.moe.go.kr
eduzine21@gmail.com
웹 진
제 보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집

학교안전교육, 몸으로 배운다

- 12 통계로 알아보는 학교안전사고
- 16 생활 속 위험 대비·안전사고 예방하는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 19 전국 안전체험관 248개소...
지역마다 특화된 체험시설 눈길
- 22 도서·읍면 학교로 안전체험차량이 찾아갑니다!
- 26 해외의 학교 내 안전교육의 방향은?
- 30 ① 여름방학, 안전하게 보내기
② '꼭' 알아야 할 여름철 안전 상식!



02 네 꿈을 펼쳐라
포항 한국해양마이스터고 海화랑원정대
요트 타고 독도까지 250km!

06 에듀피플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보상'보다 '예방'에 초점
촘촘한 협력망으로 안전한 학교 만든다

34 교육웹툰
어린이 안전, 놀면서 배우고 체험으로 익힌다

36 교육포커스
교육시설 안전을 점검하다

40 긴급 현장 점검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신속 복구 지원

42 특별기고
중앙교육연수원의 '찾아가는 사후연수 서비스'
이제는 연수도 무료배송 시대



44 교육자치시대
대구광역시교육청
사고력·탐구력·토론능력 키우는 미래형 교수학습 'IB교육'

48 이달의 교육뉴스
올 여름방학에도 '디지털새싹 캠프' 무료 운영 외

50 진로직업인
축산물품질평가사_ KAPE 대전충남지원 박인선 팀장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제공, 국민 건강 책임지는 일!

54 이야기 인문학
불안의 기원과 부담 없는 연대

56 교실혁명
위험교육 기반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우리 학교 안전 지키기'

60 현장중계
제8회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
생성형 AI, 보조교사·학습 코치로 올바른 활용에 주목

62 명예기자 리포트
신나는 여름방학, 무료로 무제한 전자책 이용하세요~ 외

64 예쁜 우리말
언어 속의 놀이

포항 한국해양마이스터고 海화랑원정대

요트 타고 독도까지 250km!

‘독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7월 26일 포항 두호항을 출발하는 한국해양마이스터고 해(海)화랑원정대 요트의 돛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독도로 향하는 250여 km 여정 내내 이 돛은 바람에 펄럭였을 테다. 이날 출항을 위해 한국해양마이스터고(교장 김미향) 1학년 32명은 방학도 반납하고 따가운 여름 햇살을 견디며 요트 항해 교육을 받았다. 이들 중 8명만이 해화랑원정대로서 독도로 향한다. 누군가는 아쉬움이 남고 누군가는 환호로 기억될 뜨거웠던 일주일. 출발을 앞두고 열심히 요트 항해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울진군 요트학교에서 만났다.



1

독도 영토권 지키는 고교원정대

“독도에 꼭 가고 싶어요!”

스마트운항과를 전공하고 있는 복준열, 최정원 학생은 요트 항해 실습을 시작하던 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해화랑원정대로 뽑히지 않을 거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요트를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을 옮겼다.

광복 75주년이었던 2020년 8월 15일 당시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 9명으로 구성된 1차 해화랑원정대는 독도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해 요트 항해에 도전했다. 바다에서 꼬박 하루를 보내고 독도에 도착했는데 입도는 쉽지 않았다. 독도를 선회하며 애국가를 부르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2차 원정대는 입도해 독도 수호 결의 대회를 열 수 있었다.

올해로 4년 차가 된 해화랑원정대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교 밖 교육과정 활동이 되면서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요트

항해 교육의 기회를 넓혔다.

1학년 신청자 중에서 32명을 선발해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영덕에 위치한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총 6일간 합숙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선발된 8명의 해화랑원정대원들은 3박 4일의 일정으로 독도 뱃길 탐방과 해양 생태 관찰, 울릉도 나리분지 트레킹 등 다양한 체험을 한 뒤 학교로 돌아오게 된다. 박건욱(교육부장) 교사는 독도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의는 대단한데 예산 및 안전 문제로 인해 더 많은 학생이 함께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4차 해화랑원정대의 첫 요트 항해 교육 실습은 7월 20일 경북 울진군 요트학교에서 이뤄졌다. 요트 항해 수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차동재 국립청소년해양센터 활동운영부 과장은 “학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따라와 주어서 힘이 난다.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 갔으면 좋겠다.”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독도에 다녀올 수 있기를 당부했다.

스마트운항과, 스마트양식과에서 각각 16명씩 선발되어 온 학생들은 센터에서 먼저 요트 원리 및 요트 항해 계획, 매듭법, 선원의 역할 등 이론을 배웠다. 이론과

- 1 울진군 요트학교에서 항해 교육 실습을 받고 있는 한 학생
- 2 한국해양마이스터고 1학년 32명의 학생들이 요트 항해 교육을 받고 있다.



3 3박 4일간의 독도 요트 항해를
대비해 실습 중인 학생들
4 2022년 독도 항해 요트 출항식
(사진 제공: 한국해양마이스터고)



실기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해화랑원정대원으로 선발되어 독도 항해에 나설 수 있다.

해양산업 미래도 우리가 지켜요!

한국해양마이스터고의 전신은 포항해양과학고이다. 세 차례의 해화랑원정대는 포항해양과학고 이름으로 이뤄졌다. 이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요트학교를 찾은 김미향 교장은 “2년여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치고 올해 마이스터고 1기 학생들을 모집했다. 전국에서 온 열정적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해화랑원정대 선발에도 적극적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선정되면서 학교의 목표는 종전보다 선명해졌다. 한국해양마이스터고는 100% 취업을 목표로 스마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1학년 학생들은 글로벌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여름방학에는 영어캠프, 겨울방학에는 해외어학연수에 참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반, 요트조

종반, 소형선박조종반 등 기초해양자격증 취득도 돕고 있다. 특히 이처럼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며 해양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요트를 타고 독도를 항해하는 ‘해화랑원정대’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해화랑원정대를 이끌고 독도 항해에 나서는 한빈 인솔교사는 “요트를 타고 바람만을 의지해 독도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그만큼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운항 기술 수행 능력도 중요하지만, 협동심과 배려심에 중점을 두고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교육을 마친 후 해화랑원정대원으로 스마트운항과 윤예준, 최정원, 오정엽, 복준열, 조아연 학생, 스마트양식과 김민, 이세인, 김형준 학생이 최종 선발되었다.

7월 26일, 포항 두호항을 출발하는 한국해양마이스터고 해화랑원정대 요트의 돛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독도로 향하는 250여 km 여정 내내 이 돛은 바람에 펄럭였을 테다.’ 해화랑원정대의 도전을 응원한다. ②

Mini Interview



조아연(1학년) 학생

해화랑원정대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고 싶다. 중학생 때부터 해기사를 꿈꿨다. 전국의 해양고등학교를 알아보던 중 학교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학교를 방문해 보고 나서 진학을 결정했다. 교내의 최신식 시설과 선생님들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믿음이 갔다. 학교에서 보낸 시간을 돌아보면 살면서 이토록 보람차고 알차게 보낸 적이 있었나 싶다. 앞으로도 빛나는 어른이 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배운 노력의 가치를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나가고 싶다.

이규빈(1학년) 학생

해화랑원정대가 되어서 독도에 가는 것도 좋지만, 안 되더라도 이렇게 요트 교육을 받는 것이 즐겁다. 바다에서 하는 활동은 언제나 방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해양 스포츠 관련 전문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바다와 친했다. 자연스럽게 해양 관련 고등학교로 진로를 정했다. 스마트운항과 전공을 살려서 기관사가 되어서 배를 타고 싶다. 처음하는 단체생활이 힘든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숙사 생활이 무척 즐겁다. 여럿이서 북적이는 시간들이 재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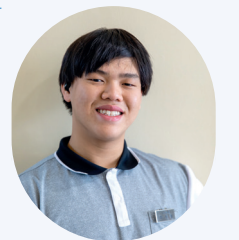


김민(1학년) 학생

해화랑원정대가 되어서 직접 요트를 몰고 독도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전율이인다. 원정을 떠나는 날 날씨가 좋아서 꼭 독도에 발을 디디고 싶다. 한국해양마이스터고는 가족들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다. 마침 입학설명회를 통해 학교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바로 진학을 결심했다. 1인 1장학금을 비롯해 평소 꿈꿔 왔던 해외 취업의 기회도 넓었다. 원래 호주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올해 학교에서 호주 연수 계획이 있다고 들어서 기대 중이다. 무엇이든 어디든 도전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학교생활이 즐겁다.

이하늘(1학년) 학생

관상어를 키우다 보니 해양생물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서 진학하게 되었다. 인근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원에 견학을 다녀온 이후에는 토종어류의 종을 보존하고 희귀 어류를 복원하는 연구에 매력을 느꼈다. 수산 관련 공무원이 되는 것도 보람 있는 일 같다. 이번에 꼭 독도에 가서 직접 독도 해양생물을 관찰해 보고 싶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발되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열심히 할 각오는 충분히 되어 있다. 학교 홍보에 앞장서는 방송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한국해양마이스터고 1기로서 멋진 선배가 되고 싶다.



이세인(1학년) 학생

어릴 때부터 아쿠아리움에 가면 물속을 부드럽게 유영하는 해파리를 넋을 잃고 보고 있게 된다. 해양생물의 매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아쿠아스케이핑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선택하게 됐다. 실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역시나! 독도 해화랑원정대를 비롯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요트 운항은 개개인의 능력과 팀워크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해화랑원정대 선발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 아쿠아리스트이든 수산직 공무원이든지 여러 갈래 길을 열어 두고 학교생활을 해나갈 생각이다.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보상’보다 ‘예방’에 초점 촘촘한 협력망으로 안전한 학교 만든다

지난 5월 22일 6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서번트 리더십, 곧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은 부임 한 달 반 남짓, 전국을 누비며 학교 안전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3년 동안 열심히 달릴 것이라는 그를 서울 마포에 있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만났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공제중앙회의 비전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큰 자부심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감도

무겁게 느낄 수 있었지요.”

“오는 8월 말까지 매주 3일은 전국을 발로 뛰면서 안전점검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일정이요. 취임한 지 한 달 반 남짓인데 벌써 2만 킬로미터 이상 달렸습니다.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청, 그리고 20개의 학생안전체험관을 직접 돌아볼 예정입니다. 또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업무협의를 위해 100여 개 대학 총장님들과도 직접 만날 계획이고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의 올 여름나기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울 마포에 있는 공제중앙회 이사장실에서 만난 그는 두 달여 동안 쉽 없이 달릴 전국의 학생안전체험관 현장방문을 펼쳐 보이며 취임 이후의 빼곡한 일정을 소개했다. 지난 5월 22일 공제중앙회 제6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그는 무엇보다 현장밀착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대외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비롯,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전국의 안전시설 점검에 나선 이유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전문기관으로!’

공제중앙회는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소중한 미래 자산인 580만 유·초·중·고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2만여 개 교육기관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2022년 10월부터는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이 추가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학은 학교안전법상의 공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또 보험 가입도 선택적으로 이루어져 대학생들이 각종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왔었다. 정 이사장은 “대학보상공제는 저렴한 보험료와 국가 기관이라는 높은 신뢰도로 현재 많은 대학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취임하고 보니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제중앙회가 중요한 역할에 비해 홍보가 덜 되어 있어 아쉬운 마음도 컸지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제중앙회의 노력을 좀 더 알리기 위해 지난 50여 일 동안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공제중앙회의 비전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큰 자부심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감도 무겁게 느낄 수 있었지요.”

정 이사장은 특히 “지난 6월 가장 먼저 제주 공제회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충북 제천학생안전체험관의 체험시설 점검 컨설팅 등에 참여하면서 공제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번엔 공제중앙회의 수장이 되면서 정 이사장이 강조한 또 다른 화두는 바로 ‘서번트 리더십, 곧 ‘섬김’의 리더십이다.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 확대는 물론, 공제중앙회 내부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1

123

정훈 이사장이 전국의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을 직접 돌며 안전점검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사진 제공,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



3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취임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설립 16년째를 맞는 공제중앙회 내부 구성원들의 평균연령이 35세예요. 젊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입니다. 우선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부서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안정을 꾀해 나갈 것입니다. 또 요즘 MZ 세대들이 중요시하는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재난상황관리시스템 새로 개통했지요”

공제중앙회는 또 정 이사장의 부임과 함께 업무 영역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의 업무 프로세스 도입 및 개선으로 ‘단순화·간소화·정보화’ 기능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재난에 대한 피해 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의 관심도 높은 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 학교 안전과 관련해 공제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계획작성, 실태조사, 학교안전정보센터,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등 총 11개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학교안전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사실 공제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 참 많은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연간 약 15만 건의 안전사고 관련 전화(상담전화 1688-4900)를 저희 콜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우선 학교안전법에 따라 3년마다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 공제중앙회에서 지원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관리지침(안)도 개발했고요. 또 내실 있는 학교안전교육을 위하여 학교안전교육의 표준안이 되는 7대 표준안(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 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관련 자료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전교육 플랫폼인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운영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

“사고는 발생한 후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공제중앙회 주요 활동의 70%를

예방교육에 주력하자는 게 제 원칙이에요.”

에서 설립한 학생안전체험관 94개관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교육연수, 체험기기 안전점검,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학생안전체험관 설립 운영 지원 사업’ 운영 등 예방정책 시행을 위한 정책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서정대학교, 성운대학교 등 대학에서 30년 넘게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강의를 해 온 정 이사장은 “유·초·중·고 및 대학안전사고 예방에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모두 녹여낼 계획”이라고 들려줬다.

“사고는 발생한 후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공제중앙회 주요 활동의 70%를 예방교육에 주력하자는 게 제 원칙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5월부터 학교에서도 일상회복이 되고 학교스포츠클럽, 현장체험학습 재개 등 교육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조체제를 구축, 다양한 예방사업을 통해 학교안전사고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인 3분기는 물놀이와 폭염 등 안전사고 발생률이 집중되는 시기다. 이를 위한 예방책으로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정보센터에 물놀이, 폭염 안전 교육자료집과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재난유형별 교육 훈련 매뉴얼 및 관련 영상콘텐츠를 탑재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전 국민이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안전 공동목표 실현할 지휘본부 만들 것”

“제가 현재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학교(KIUF) 명예총장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현재 중국, 일본, 베트남 등 17개국에 34개교의 재외한국학교가 운영 중이에요. 외국의 경우 의료보험제도가 잘 구축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재외한국학교 학생들도 국내 학생들처럼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말미, 정 이사장은 임기 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 하나를 소개했다. 현재 교육부 산하에 있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등 학교 안전과 관련한 기관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학생안전과 시설안전, 보건 분야를 막론하고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지휘본부)가 필요하다.”라면서 “관련 기관과의 견고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안전 전문기관을 공단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게 임기 중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오는 9월 창립 16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9월 18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대국민 학교안전 홍보 캠페인’과 ‘학교 안전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학교안전교육, 몸으로 배운다

안전전문가에 따르면, '안전의식'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반복적인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몸으로 체득할 때 형성된다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위험이 감지되면 당황하지 않고 몸이 자동으로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교육부의 체험 중심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과 전국의 안전체험관 정보,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학교안전교육 현장 등을 집중 조명한다. 또한, 여름방학을 맞아, 교육가족이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는 방법과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Special Theme

- 12 통계로 알아보는 학교안전사고
- 16 생활 속 위험 대비·안전사고 예방하는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 19 전국 안전체험관 248개소... 지역마다 특화된 체험시설 눈길
- 22 도서·읍면 학교로 안전체험차량이 찾아갑니다!
- 26 해외의 학교 내 안전교육의 방향은?
- 30 ①여름방학, 안전하게 보내기
②'꼭' 알아야 할 여름철 안전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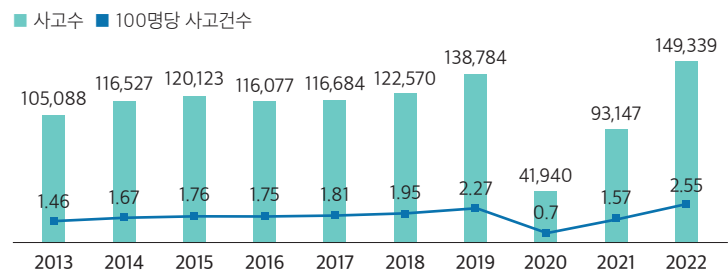
통계로 알아보는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란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이뤄지는 수업을 비롯해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과 체육대회 등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대에 사고가 일어나는지, 사고의 형태와 사고 부위 등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여기서는 2022년 학교안전사고를 학교급별, 사고시간별, 사고장소별, 사고부위별, 사고형태별, 사고당시행동별로 소개한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최근 10년간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대면 교육활동이 축소되었던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14만 9,339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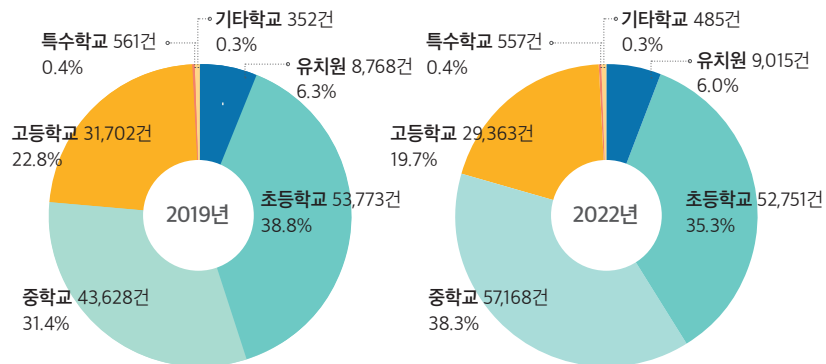
그림 1 -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2013~2022) (단위: 건)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

학교급별 2022년 학교급별 사고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총 14만 9,33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중학교(38.3%), 초등학교(35.3%), 고등학교(19.7%) 순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초등학교('19. 53,773건 → '22. 52,751건)와 고등학교('19. 31,702건 → '22. 29,363건)에서는 발생건수가 감소한 반면, 중학교('19. 43,628건 → '22. 57,168건)에서는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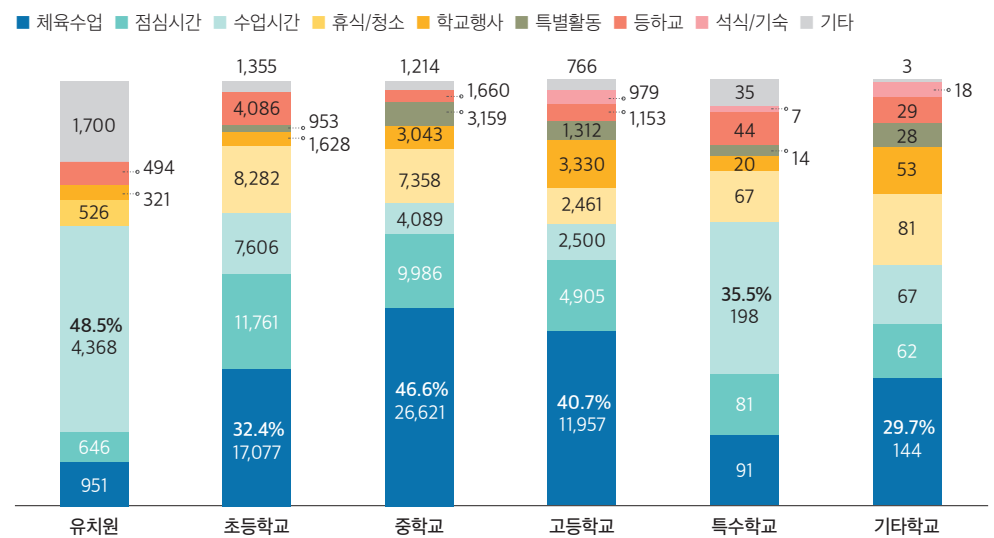
그림 2 - 학교급별 사고 발생 현황(2019, 2022) (단위: 건, %)



초·중·고에서는 체육수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유치원과 특수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시간별 2022년 학교안전사고를 시간별로 살펴보면, 체육수업(38.1%) > 점심시간(18.4%) > 수업시간(12.6%) > 휴식/청소(12.5%) 순이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에서는 체육수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유치원과 특수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9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 안전사고('19. 26.9% 14,496건 → '22. 22.3% 11,761건)가 다소 감소한 반면, 체육수업 안전사고('19. 24.4% 13,138건 → '22. 32.4% 17,077건)는 증가하였다.

그림 3 - 학교급별 사고시간(2022)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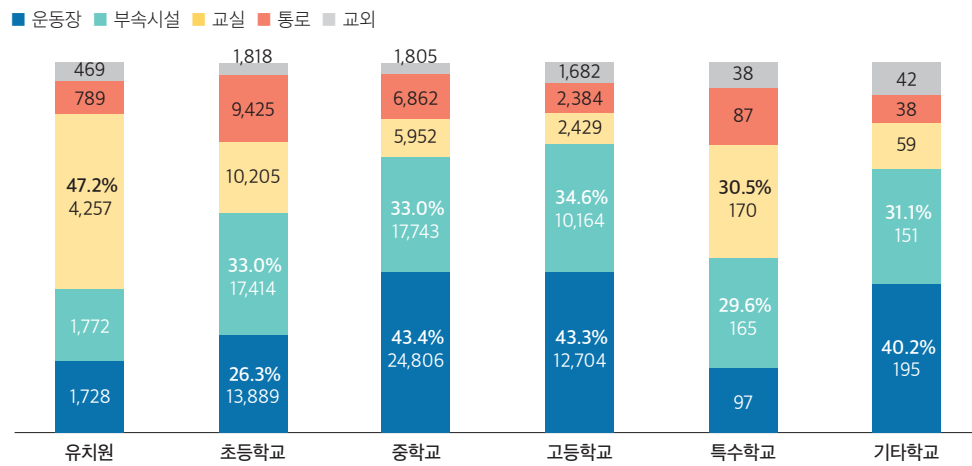
사고장소별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일까? 2022년 학교안전사고 장소를 살펴보면, 운동장(35.8%) > 부속시설(31.7%) > 교실(15.5%) > 통로(13.1%) > 교외(3.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수업시간 중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유치원과 특수학교에서는 교실에서의 사고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체육수업 중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초·중·고에서는 운동장과 부속시설에서의 사고발생 비율이 높았다.

유치원은 머리부위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초·중·고는 손/팔과 발/다리 부위의 사고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 학교급별 사고장소(2022)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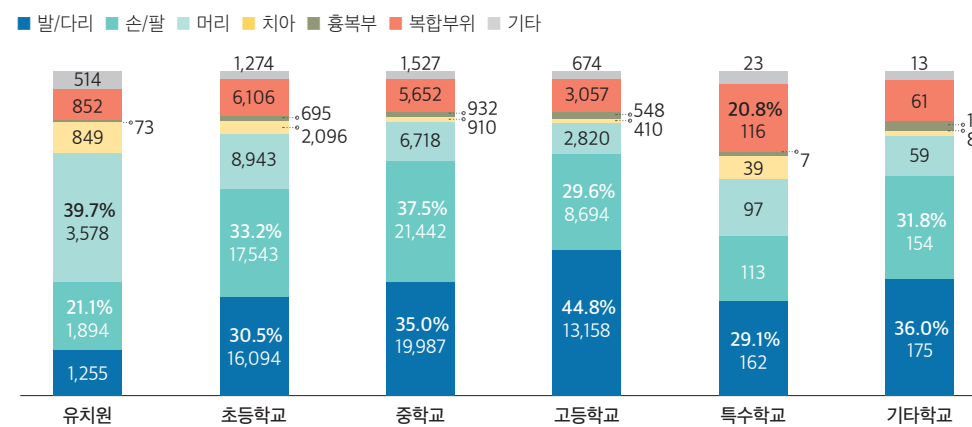


사고부위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사고부위별)은 발/다리(34.1%) > 손/팔(33.4%) > 머리(14.9%) > 복합부위(10.6%) 순이었다. 유치원은 머리부위 사고가 39.7%(3,578건)로 가장 많았으며 초·중·고는 손/팔과 발/다리 부위의 사고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 학교급별 사고부위(2022)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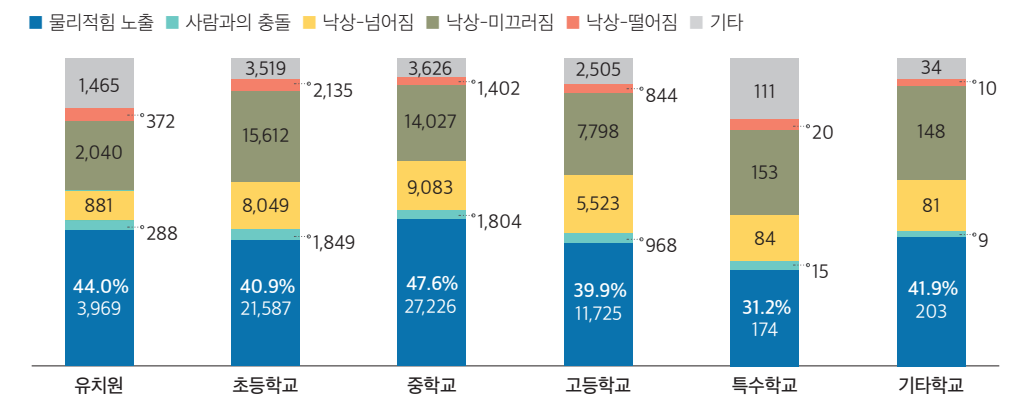
주) "복합부위"는 사고부위가 2개 이상인 경우임(2020년도부터 사고부위 중복선택 가능)

사고형태별

사고형태별로 살펴보면, 물리적힘 노출(43.4%) > 낙상-미끄러짐(26.6%) > 낙상-넘어짐(15.9%) 순이었다. 모든 학교급에서 물리적힘 노출에 의한 사고발생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유·초·중학교 경우 비율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모든 학교급에서 사람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19. 13.9% 19,355건 → '22. 3.3% 4,933건)와 낙상-넘어짐 사고('19. 25.9% 36,075건 → '22. 15.9% 23,701건)는 줄어든 반면, 낙상-미끄러짐 사고('19. 8.5% 11,865건 → '22. 26.6% 39,778건)는 크게 늘었다.

그림 6 - 학교급별 사고형태(2022)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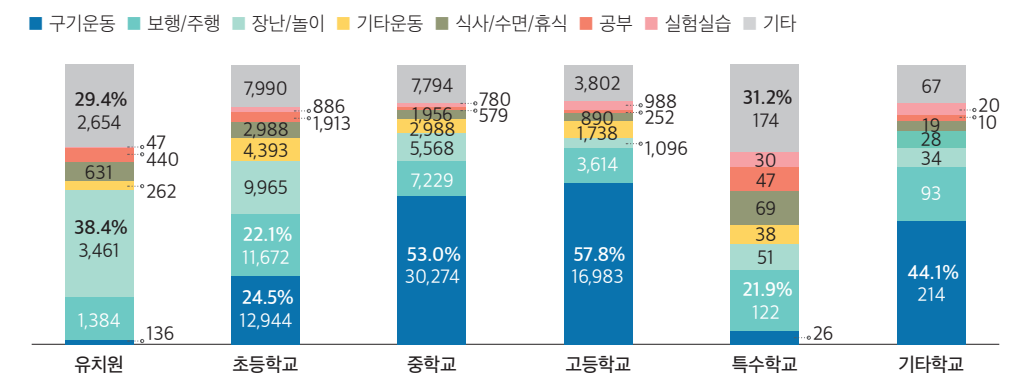


사고당시행동별

사고당시행동별로 살펴보면, 구기운동(40.6%) > 보행/주행(16.1%) > 장난/놀이(13.5%) 순이었다. 유치원은 장난/놀이 중 사고발생 비율이 38.4%(3,461건)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는 구기운동(24.5%), 보행/주행(22.1%), 장난/놀이(18.9%) 순으로 사고발생 비율이 높았다. 중·고등학교는 구기운동 시 사고발생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

그림 7 - 학교급별 사고당시행동(2022)

(단위: 건, %)



출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생활 속 위험 대비·안전사고 예방하는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1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대형 건축물 붕괴, 세월호 침몰 등 안타까운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교육부도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2014년)»,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제1차~제3차, 2015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생활의 안전사고와 재난 등에 대응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 강화,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마련 등을 통해 내실 있는 학교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안전교육의 체계화와 실질적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소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일상생활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다양한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체험 중심의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능동적 주체로서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안전교육 강화

학생 안전교육은 범교과학습으로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발달 수준에 맞게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었다. 교육과정 총론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침이 강화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밀집도 등을 고려한 안전 확보 지침을 담은 항목이 신설되었다.

초1, 2학년은 통합교과 주제와 연계한 교과 연계 실생활 중심 안전

교육부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문화 구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한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학생안전체험관(부산)
3 안전동아리 활동
4 재난안전훈련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체육·음악·미술·보건 등의 교과목에 다중 밀집 환경 안전수칙 및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함양을 포함한 실생활 중심의 실효적 안전교육을 실습·체험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강화한다.

체험 중심 학교안전교육, 위기대응능력 키워

201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 및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4개 유형, 94개소의 학생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하여 화재, 지진, 교통 등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초등 학년군별 및 모든 중·고등학생이 체험관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학교 안팎의 위험요인을 학생들이 스스로 발굴·개선하는 안전동아리 활동과 학생들이 훈련 시나리오 작성, 훈련 진행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재난 안전훈련 등을 운영하여 학생이 주도하는 안전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체험차량과 안전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보급, 학교안전교육 내실 운영 지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학생안전교육을 위해 학교급별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유, 초1~2, 초3~4, 초5~6, 중, 고)」을 개발·보급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다중밀집 상황 등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비한 교육자료를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지속적으로 추가·반영하여 시의성 있는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 장애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안전교육자료 번역본(영어, 중국어 등)과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을 고려한 안전교육자료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체험시설을 360° VR 촬영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체험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 지진 등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가상현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사용자 몰입감을 강화한 신기술 활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교직원 체험 연수 및 전문인력 지원 확대

온라인 방식 위주로 실시되던 기존의 교직원 대상 안전연수를 체험·실습형 연수로 확대하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안전연수와 자격연수과정 등에 체험·실습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직원의 안전교육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안전 관련 자격증, 교육활동 경험 등을 심사하여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학교에 제공하여 학교에서 편리하게 전문강사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강의실적·만족도 등을 통해 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대비와 예방이다. 어디에서나 위험을 마주할 수 있고, 그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기에 위험 대비·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학창 시절의 안전교육은 성인이 된 후에도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므로, 교육부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문화 구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한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5 온라인안전체험관



6 확장 가상 세계 안전체험

전국 안전체험관 248개소… 지역마다 특화된 체험시설 눈길

교육부는 2026년까지
‘1 시도-1 종합체험관’을 구축해
초·중·고 모든 학생이
1회 이상 체험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안전의식을 높이고 체득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안전체험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위기 대응법을 배우는 경험 교육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안전체험시설은 2022년 기준 총 94개소. 2015년 13개소에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꾸준히 늘린 결과다.

이들 체험시설은 운영형태*에 따라 종합형, 소규모형, 이동형, 교실형으로 나뉘는데, 유휴교실을 활용한 교실형이 59개소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 뒤로 종합형(14), 소규모형(12), 이동형(9) 순이다. 시도교육청은 시설마다 지역 특화체험, 온라인 쌍방향 가상체험 등을 다채롭게 운영해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26년까지 ‘1 시도-1 종합체험관’을 구축해 초·중·고 모든 학생이 1회 이상 체험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타 부처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안전체험시설은 현재 154개소이다. 규모가 큰 대형 안전체험시설의 경우 13개 시도가 운영 중이며, 서울이 4개소로 가장 많다. 이들 체험관은 지리적 특색을 반영한 특화된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산악안전체험과 호우안전체험을 특화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선박과 항공기 특성화 체험관을 갖춘 ‘제주안전체험관’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체험관을 360도 가상현실(VR)로 촬영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체험관도 눈길을 끈다. 현재 인천, 세종 2곳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올해 5개소로 확대하여 가상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종합형)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지진, 풍수해 등 안전체험교육 실시를 위한 체험관
- (소규모형) 학생교육원, 연수원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체험관
- (교실형) 학교 내 유휴교실에 안전체험시설을 구축하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체험관
- (이동형) 차량 내 안전체험 교구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학생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체험 차량

전국 방방곡곡 안전 나들이 떠나볼까?

■ 시도교육청 운영 ■ 타 부처·지자체 운영

서울·울산 키즈오토파크

어린이 발달 수준에 맞춘 교육안전체험관
오토가상체험관, 보행교육장, 이면도로교육장, 주행교육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상은 6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실제처럼 꾸민 도로에서 횡단보도와 골목길 건너기 등 생활 속 교육안전 수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모형 만들기, 주행 체험 등 특별교육을 운영한다.



경기 안산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국내 최초 해양 안전 전문 체험관
최신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안전체험존과 직접 수중체험이 가능한 대형수조가 갖추어져 있다. 대형수조가 있는 실습관에서 침수 선박 탈출체험, 생존수영과 선박 비상 탈출법, 거꾸로 치는 파도인 이안류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월 1회 가족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운영
지진, 풍수해, 자동차, 항공, 선박 등 12개 체험관이 있으며, 12명의 보조강사가 안전한 체험활동을 돕는다. 일선 학교에는 가상현실(VR) 기기를 대어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족을 위한 안전체험 주말 프로그램도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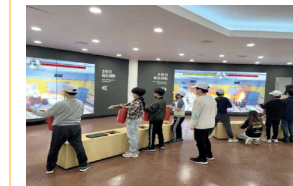
광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차량·건물 침수사고 대비한 호우 안전체험 특화
산악·호우·지진안전 등 8개 체험구역에서 23개 체험시설을 운영한다. 차량·건물 침수사고를 대비한 호우 안전체험을 특화해 차별화했으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인형극을 열어 안전의식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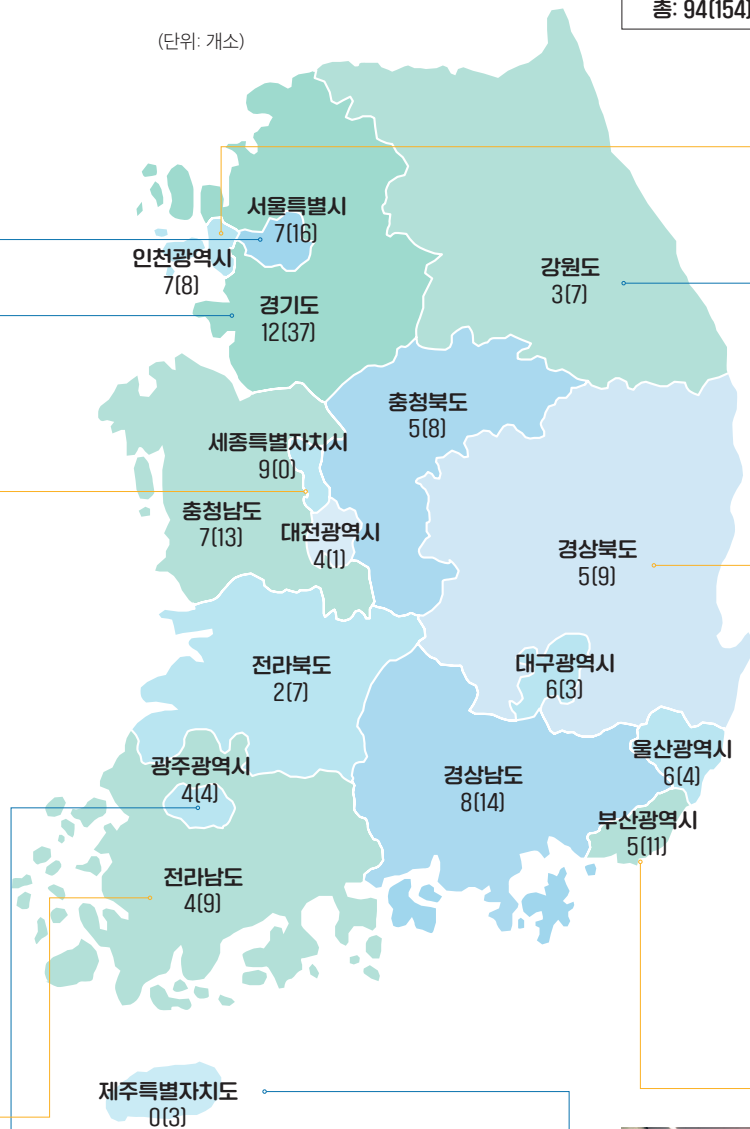
전남 무안 전라남도교육청 유달학생수련장 학생안전체험관

학생수련활동과 연계 안전체험관 상시 운영
학교 단위로 참가하는 학생수련활동(도전활동, 힐링활동 등)과 연계해 안전체험관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기존 챌린지 어드벤처(인공암벽, 합동 사다리, 구름다리 건너기) 교육시설과 연계해 위기탈출·화재대응 등의 안전체험 교육활동을 한다.



총: 94(154)

(단위: 개소)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메타버스 안전교육 플랫폼 '안전스쿨' 운영
12개 체험관에서 90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초·중·고 학교급별 7대 표준안전 영역에 맞는 수준별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메타버스 안전교육 플랫폼 '안전스쿨'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태풍·지진·해일·화재대피 등의 행동요령과 안전상식을 익힐 수 있다.



강원 태백 365세이프타운

교육과 놀이를 융합한 국내 최대 안전체험 테마파크
재난안전, 생활안전 체험을 하는 종합안전체험관, 현직 소방관이 지도하는 소방안전체험관, 극기체험을 하기 위한 챌린지월드로 이루어져 있다. 지진, 산불, 풍수해, 설해, 대테러와 같은 5개 4D 체험관을 갖추고 있으며, 스카이버지, 짙라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챌린지월드, 키즈랜드, 곤충관 등을 통해 놀이와 교육을 융합하고 있다.



경북 경주 경상북도교육청 경주안전체험관

폐교 활용 올해 3월 개관, 24개 체험시설 구비
재난안전체험관, 생활안전체험관, 교통안전체험관, 생명존중체험관, 응급처치체험관 등 5개관과 4D영상실 등 24개의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학생, 교직원 대상의 일반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족안전체험, 일반기관을 대상으로 단체안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주 제주안전체험관

'섬' 지역적 특색 반영한 선박·항공기 특성화 체험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선박과 항공기 특성화 체험관을 갖추고 있다. 선박과 항공기에서 탈출을 체험해 보고, 태풍의 강도를 몸으로 느껴볼 수 있다. 재난현장 전문가인 소방관이 직접 21개 체험 프로그램을 생동감 있게 운영한다.



부산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상에 특화된 안전체험과 6개 언어 지원
해양도시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상 안전체험실과 선박안전체험실을 구축하고 있으며, 실내 수영장에서 초등 생존수영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활안전 등 7개 체험실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6개 언어의 음성 안내를 통해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도서·읍면 학교로 안전체험차량이 찾아갑니다!



- 1 지진체험
- 2 교통안전체험
- 3 탈출체험
- 4 안전체험차량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초·중·고 아이들과 소방관들

교육부는 올해 5월부터 소방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도서·읍면·도시외곽지역 학교를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관이나 교통안전교육지도사 등 안전전문가가 안전체험시설을 갖춘 이동체험차량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여 화재안전, 지진대피, 교통안전 등의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60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위치한 초성초등학교(교장 이춘석) 안전체험교육 현장을 소개한다.

“자, 우리는 이동안전체험차량에 들어가서 지진체험, 교통안전체험, 연기미로 탈출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탈출체험도 할 거예요. 용감하게 소방관이 입는 옷과 모자를 쓰고 들어갈게요. 알겠죠?”

정정호 소방관의 말에 동료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아이들에게 소방관 옷과 안전모를 씌워준다. 6명씩 모둠을 만들어 아이들을 체험차량에 탑승시킨 뒤 지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원형 테이블 밑으로 머리를 잘 숨기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진도3의 진동이 바닥에서 느껴진다. 진도4, 진도6, 진도7까지 지진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진동과 흔들림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진체험 및 지진대피 교육이 이뤄진다.

안전전문가가 학교 방문해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친구들, 나와서 한번 봐요. 선반에서 인형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머리 위로 물건이 떨어지는 걸 친구들이 보진 못했어요. 실제로 지진이 나면 위험한 물건이 떨어져서 다칠 수



있지만 이런 위험은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우리는 머리를 단단한 탁자 아래로 숨기고 잘 피해야 해요. 알겠죠?” “네!”

이어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통안전체험과 화재 시 대피방법을 알려주는 연기미로 탈출체험이 진행됐다. 차량 탑승 전 강당에서 영상교육과 소방관의 실습교육으로 배운 내용을 체험해서인지 아이들이 곧잘 대답하고 배운 대로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오늘 진행된 안전체험교육 현장에는 소방관 5명과 소방관의 구조 및 화재활동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원 5명 총 10명이 출동해서 교육 활동을 펼쳤다.

1,332개 교 12만 6천여 명 참여

2017년 소방안전체험교육으로 시작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5월부터 도서·읍면·도시외곽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비 237개교가 늘어난 600개교 학생들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받게 됐다.

지리적 여건으로 안전체험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안전체험 교육활동이 힘들었던 지역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안전전문가가 안전체험차량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화재 및 지진대피 체험,



완강기·통학차량 안전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소화기 사용법 등을 익힐 수 있어 안전의식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진행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학교의 입지적 여건과 안전사고 유형 등을 고려해 학급별로 맞춤형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학생은 안전체험차량 시설, 안전보행 체험교구를 활용하여 화재·지진·교통 등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은 119안전교육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가상안전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륜차,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교통안전교육도 추가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학급별로 맞춤형 체험교육 제공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한 초성초 신영식 교사는 “안전체험관이 양주에 있긴 하지만 학사일정이나 버스운행 조율 등의 이유로 전교생을 인솔해서 가는 게 어려웠다. 또 우리학교는 조리중심교라서 인근 4개 학교에 급식을 보내는데 체험학습을 가려면 학교 간 일정조율을 해서 한 번에 가지 않으면 급식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체험차량과 함께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와서 안전교육을 진행해줘서 매우 만족한다.”라면서 특히 안전체험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저학년에 맞춘 체험 중심 교육내용이어서 아이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참관을 위해 현장을 찾은 교육부 김지훈 교육연구사는 “안전체험교육은 체험

5 소방안전 강의
6 심폐소생술체험

하고 체득해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다. 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반가웠다. 즐기면서 체험하는 안전교육이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발전시켜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에는 1,332개교 12만 6천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학교구성원 모두 위기대응능력을 키우고 아울러 안전의식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해마다 신청하는 학교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올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에 신청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800개교가 넘었다. 교육부는 소방청,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학교 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안전교육, 해양안전교육 등을 추가하여 안전체험교육을 더욱 다각화할 계획이다.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 소방안전교육

최소 5명 이상의 소방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화재와 지진 시 대피방법, 교육용 소화기·연기소화기를 활용한 소화기 사용법, 인체모형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도 최소 2명 이상의 소방관이 동행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체험차량

안전체험차량 내부는 지진체험, 연기미로 탈출체험, 교통안전교육, 승강기 안전체험, 비상탈출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활한 안전체험교육을 위해선 체험인원을 25~30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Interview



“나의 안전이 곧 모두의 안전이다!”

안전교육지도사 김병빈 소방관

Q 오늘 진행한 안전체험교육 내용은?

5명의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여 화재안전교육,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체험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또 학생들이 이동안전체험차량에 탑승하여 지진대피, 연기미로 탈출, 교통안전, 비상탈출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Q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환경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안전체험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 안전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Q 바람직한 안전체험교육,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안전체험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교육보다는 체험장비를 활용한 대면교육이나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학교에서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나 사례를 공유하면서 교육할 때 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Q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은?

교사를 포함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의 안전이 곧 모두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학교시설 및 위험요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 교내 안전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안전교육과 교내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 등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위기대처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의 학교 내 안전교육의 방향은?



한 국보다 안전교육을 시행한 역사가 긴 해외에서는 학교 내 안전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미국, 영국, 일본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 한국의 안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미국, 강력한 법으로 강제... 과목마다 안전수업

안전에 관한 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미국은 저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과목마다 안전수업이 들어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과학수업과 상업수업의 첫 주 수업이 실험실안전, 상업안전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고 실습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추가로 교통 및 소방, 자연재난, 학교폭력, 총기 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요령을 필수적으로 가르친다.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학생들이 교통법규와 규칙을 이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소방안전교육은 학생들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불의 특성을 이해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화재예방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소화기를 작동해 보는 것은 기본이고 911에 신고하는 절차도 소방안전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룬다. 학교에서의 소방안전교육은 실제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대부분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이 많아 실제 화재 시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하여 거기에 맞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안전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는 학교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안전교육은 획일화된 안전교육보다는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중남부 지방의 경우 태풍이 자주 오므로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에 더 집중하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진이 자주 발생하므로 지진에 대비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다. 비상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 등의 전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학령기별 특성 고려한 안전교육 실시

영국은 일찍이 교육개혁법에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목표를 명시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지침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민간부문에서는 ‘왕립사고방지협회’가 나서서 중앙정부와 협의 끝에 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학교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과정은 중앙정부 교육과정과 지방정부 교육과정이 혼용되어 학교마다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의 위치에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독립교과 또는 다른 교과목과 혼합교과로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교육내용이다. 한국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교육과학성’은 안전교육의 각 분야에 관한 지도서, 참고서, 교재를 발행·배포하고 있으며, 학교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한국의 지방교육청에 해당하는 ‘지방교육국’의 책임아래 학교안전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 설비, 인원 등을 연구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서를 편찬하여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학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교직원은 자신의 안전을 관리하고 학생의 안전을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전개하여 안전이 체화될 수 있도록 하자.

우선시하며 학교장의 안전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학생도 자신의 안전상황을 판단하여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학령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유치원~고교까지 실습 위주 안전전문교육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일본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분야별 안전전문교육을 실습 위주로 실행하고 있다. 안전교육을 크게 ‘학교안전교육’과 ‘학교방재교육’ 두 가지로 세분되어 있다. 학교안전교육은 학생의 학교생활, 사회생활, 학교 시설물 등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학교방재교육은 지진이 나 태풍 등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과 관련된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에서는 교통사고 방지방법과 학교 시설물에 의해 발생하는 부상의 응급처치법, 지진 등에 대한 토지의 변화부터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체육, 사회, 도덕, 특별활동, 종합학습시간과 같은 여러 수업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보건체육, 기술·가정, 특별활동 등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교육이 행해지고 있으며 소학교와 같이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통하여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지진·태풍 등의 자연재난에 관한 대처법, 지역 재난 등에 대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심신의 안전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일상생활에서 체육·보건에 관한 활동을 촉진하고, 특별활동 등을 통하여 소학교에서부터 배워왔던 교통안전, 지진·태풍 등의 자연재난 대처법, 심폐소생술 등을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통하여 반복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교과목, 학급활동은 물론, 학교전체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소방서 등 교외의 전문가와도 연계하여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이론 위주 영상교육으로 안전의식 향상될 수 없다

그에 비해 한국의 안전교육은 어떠한가? 작년 헬러원 참사를 되돌아볼 때 분명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의식 결여도 무시할 수 없다. 안전의식의 향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체험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생활화해야만 가능하다. 한국의 안전교육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초·중·고 안전교육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직업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등 7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군중 밀집 지역 관련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는 이번에 향후 학교 안전교육에 추가한다고 한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안전교육 차시가 거의 균등하고 분야별로 학기당 1회에서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는 거의 매월 안전교육이 실습 위주로 잘 이루어져 있고, 초등 교육과정에서도 ‘안전한 생활’이라는 과목을 정규교육과정에 넣어서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다르다. ‘우당탕탕 아이쿠’라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는 것으로 대체되기 일쑤라고 한다. 중학교만 가더라도 학생들이 정규수업으로 인해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어있지만 성적반영이 되지 않아 뒷전으로 밀린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시달리며 학부모의 강력한 의견 및 학교정책상 그나마 1년에 한두 번 하는 안전교육조차도 이론 위주의 영상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전의식이 향상될 수가 없다.

안전의 습관화, 반복적 체험 위주 교육일 때 가능

안전교육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개인 및 단체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이 해시키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시키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안전의 습관화는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이론적 교육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우리도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교과 또는 필수교과로서의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 무관심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전개하여 안전이 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여름방학, 안전하게 보내기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와 함께 교외로 휴가 계획을 세우는 가족들이 많다. 때문에 이 시기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물놀이 안전사고와 일사병, 열사병과 같은 열과 관련된 질환 등이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와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여름에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어떠한 것인지 또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

여름철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물놀이사고가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의 최근 5년간(‘17~’21)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7명으로 피서 절정기인 8월 초순에 인명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시기별로 보면, 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12.2%(총 147명 중 18명), 7월 38.1%(56명)를 차지하였고, 8월에는 49.7%(73명)로 절반 가까이 발생하였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40.1%(총 147명 중 59명), 계

곡 26.5%(39명), 해수욕장 18.4%(27명), 바닷가(갯벌, 해변) 14.3%(21명)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사고 원인은 주로 수영미숙 31.3%(총 147명 중 46명),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부주의 29.3%(43명), 음주수영 17.0%(25명), 튜브전복 8.8%(13명), 높은파도(급류) 6.8%(10명)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물놀이 안전사고는 여름 휴가철(6~8월) 기간에 하천, 계곡, 바닷가 등에서 수영미숙, 안전부주의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심하기 쉬운 물놀이사고의 위험성

여름철 안전사고 중에 물놀이사고를 빼놓을 수 없다. 매년 물놀이 안전에 대해 주의하지만 사고는 변함없이 발생하고 있다. 물놀이 시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며 계곡처럼 물이 깊거나 급물살은 피하고 사소한 위험에도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팔→얼굴→가슴 순서)부터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가야 한다. 물놀이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추위를

느꼈을 때는 바로 물에서 나와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물에 들어가지 말고 주위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부력이 있는 물건(튜브, 스티로폼,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를 요청한다.

또한, 여행 전에 일기예보를 잘 살피고 해당 지역에 비예보가 있을 시 계곡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 야영하는 장소에 비가 오지 않아도 상류에 내린 비로 하류 계곡이 범람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텐트를 쳐야 한다면 물가 옆을 피하고 바닥에 물이 흐른 흔적이 없는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만약, 계곡물이 불어 텐트로 밀려들 경우, 물건을 챙기려 하지 말고 즉시 자리를 떠나야 한다.

잦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대비 필요

최근 들어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온열질환자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에는 열사병이 대표적인데, 과도한 고온 다습의 환경에 노출되면서 체온 발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온열질환 중 치사율이 가장 높다. 열사병이 발생했을 경우, 강하고 빠른 맥박과 중추신경 기능장애, 메스꺼움, 어지럼증이 동반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19에 신고 후,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물을 부어 식혀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 열탈진이 있다.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며 피부가 차갑게 창백해지며 심한 피로와 함께 과도한 땀 흘림이 발생한다. 이런 땀 바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 주고, 에어컨이 있는 장소나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여름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3가지 당부

여름방학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몇 가지 당부한다면 첫째, 물놀이할 때는 보호자와 항상 함께하며 물속에서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장난은 금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해야 한다.

둘째,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고는 낮 시간대(12~17시)에 49.1%로 집중되므로 가급적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물을 자주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취소하고 기상예보를 확인해 비가 그칠 때까지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이 여름철 안전사고 수칙을 준수하고 대비한다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1 - 최근 5년간(‘17~’21) 6~8월 물놀이 사고 사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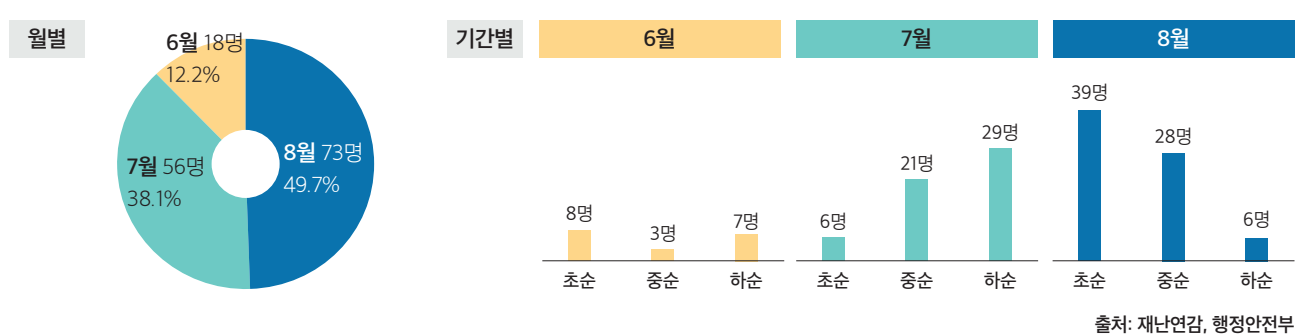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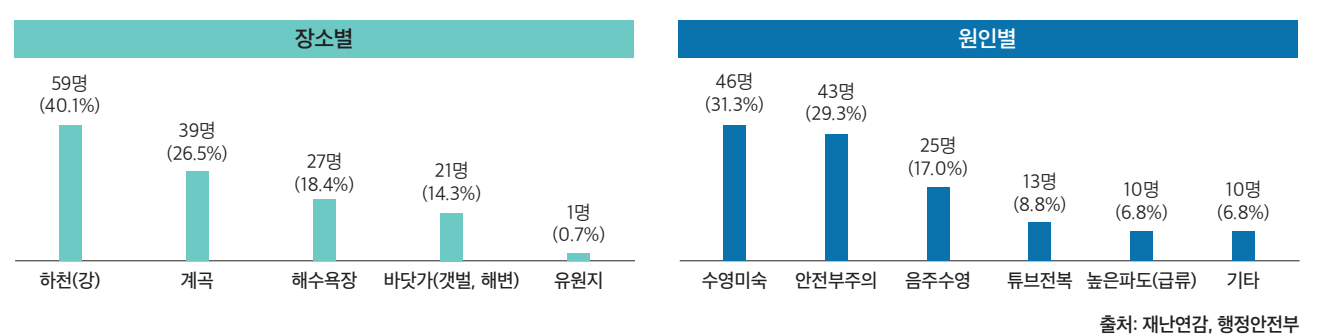


그림 2 - 최근 5년간(‘17~’21) 장소별·원인별 물놀이사고 사망자 현황



'꼭' 알아야 할 여름철 안전 상식!



3분 이상 준비운동하기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에 적시기



구명조끼 착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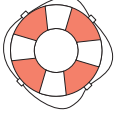
다리를 끼우는 튜브는 뒤집힘 사고에 주의하기



음주 후 수영금지, 과도한 식사 후 수영 NO



파도에 휩쓸렸을 때,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깊이 마신 상태로 숨을 참아 자연히 떠오르게 하기 (생존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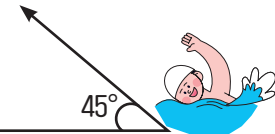
동료가 물에 빠지면 주위 물건 (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해 구조하기



구조요청은 119로



해파리에 쏘였을 때, 바닷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씻어주고 핀셋이나 카드로 긁어낸 후 냉찜질하기



이안류에 휩쓸리면 해변의 45° 방향으로 수영하기



갯벌에 들어갈 때는 들물 시간 확인하기



갯벌에 혼자 들어가는 것은 금물. 2인 이상 이동할 것



갯벌에 발이 빠지면, 등을 대고 누워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다리를 움직여 나오기

여름철 폭염 대비 행동요령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두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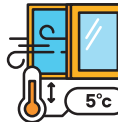
물을 자주 마시고, 카페인 등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기



가장 더운 오후 2~5시에는 야외활동 자제하기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모자와 물병 휴대하기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 예방하기(적정 실내 냉방온도 26~28°)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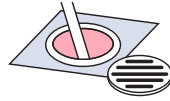
TV, 인터넷 등으로 기상상황 파악하기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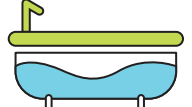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 미리 점검하기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 등에서는 모래주머니, 물 판막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 예방하기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가지고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등에 모아두기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조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두기

어린이 안전 놀면서 배우고 체험으로 익힌다





교육시설 안전 점검하다

교육시설안전인증제도는

교육시설의 전반적인 안전환경 수준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을 통해 확인, 검증하는 제도이다.



교육시설의 안전 강화된 '교육시설법' 시행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2020년 12월 4일부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시설법은 교육시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관리,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안전한 교육 현장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으로 교육시설 안전과 관련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교육시설 안전과 관련한 여러 제도가 교육시설법 내에서 시행 중인데, 이전부터 시행해 왔던 교육시설의 구조부, 즉 건물 자체가 튼튼한지 노후화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안전점검제도, 교육시설 주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환경을 평가하는 안전성평가제도, 교육시설의 안전환경 수준을 확인, 검증하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교육시설안전인증제도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시설법 및 하위 제도의 시행은 누군가의 부주의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여기서는 안전과 관련한 제도 중에 교육시설안전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시설안전인증제도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사용하는 실내 공간의 사고 발생 가능성, 등하굣길, 운동장 등을 포함한 외부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시설의 전반적인 안전환경 수준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을 통해 확인, 검증하는 제도이다. 교육시설법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2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특히 연면적 100㎡ 이상인 유치원 및 초·중·고의 경우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받아야 한다. 2025년까지 모든 교육시설은 의무적으로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2023년 6월 현재, 약 1,000개교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취득하였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사고 발생 가능성 낮춘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시설은 여러 안전사고와 대면하고 있다. 학교 외벽을 구성하는 벽돌 마감재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탈락·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내 하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자의 차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교내 전기합선 및 누전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유가 교육시설 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환경' 상태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관리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미흡한 부분은 관계자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육시설안전인증제'가 시행된 이유이다.

교육시설안전인증제는 외부전문가가 교육시설에 대한 시설적인 안전환경,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내 공간에 대한 안전환경, 등하굣길 등 외부 공간에 대한 안전환경 등을 확인하고 교내 미흡한 요소 및 부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시설을 사용하는 관계자는 생활하고 있는 시설의 안전환경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안내받게 되면서 현재보다 더 안전한 교육환경으로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교육시설, 인증심사 통해 '안전환경'으로 개선

교육시설안전 인증심사는 교육시설에 대해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시설안전 분야로, 교육시설이 가진 건물 구조적인 위험 요인, 사용하는 전기 및 기계설비의 위험 요인, 조리 등에 사용하는 가스설비의 위험 요인,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소방설비에 대한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고 물리적 노후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실내환경안전 분야로, 교육시설 내 공간에 대해 낙하, 충돌, 낙상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 여부와 실내 건축재료로부터의 위험 요인 등으로 확인하고 있다. 세 번째는 외부환경안전 분야로, 교육시설의 외부 공간(운동장 등) 및 절대보호



인증심사단이 교육시설 내 모든 공간을 실제 확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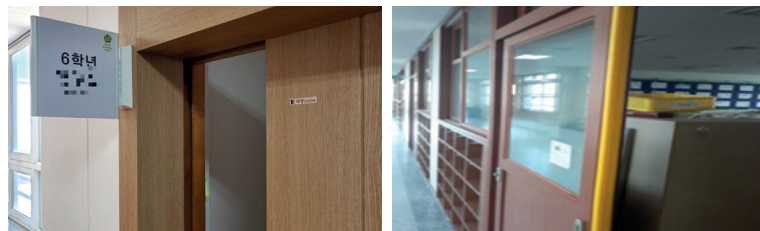


인증심사단이 교육시설 관계자에게 현장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구역범위 내 학생들의 등하굣길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있다. 추락 방지를 위해 건물 난간의 높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등하굣길 차도와 보행로를 구분하는 등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과정, 화재 사고를 대비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3가지 분야를 주요하게 심사함으로써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시설 안전인증 심사과정에서 교실 공간의 미흡한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온 실내환경안전 분야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먼저, 학생들이 매일 수시로 이용하는 교실 출입문의 경우, 여닫는 과정에서 문틀에 손이나 신체 일부가 끼여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교육시설 담당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안내했으며, 교육시설에서 손끼임 방지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교실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낮출 수 있었다.



손끼임 방지조치가 되지 않은 교실 출입문

손끼임 방지조치로 개선된 교실 출입문

또한 교육시설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식을 도입하고 IT 등을 활용함에 따라 최근 전자칠판, 컴퓨터, TV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기 사용을 위해 멀티탭을 쓰고 있다. 멀티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어발식으로 연결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는 전기 과부하 환경을 만들게 되어 누전 또는 과전류로 인한 전기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인증심사 과정에서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공간 사용자와의 소통으로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또한, 비상 상황(화재사고)을 대비해 공간마다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 등의 소화용구가 일부 교육기자재 및 적재물 등에 가려 위치를 인지할 수 없거나 비상시 적재물 등이 있어 손쉽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공간이 많았다.



외부환경에 대한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조사



추락 방지를 위해 난간 높이 확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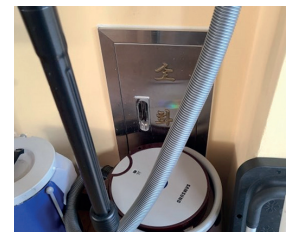


전기제품 사용 시 문제가 되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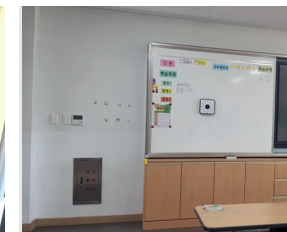


전기제품 사용 시 문어발 형태가 아닌 멀티탭의 적절한 사용

소화기 등 소화 용구는 비상시 누구나 접근하여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화재사고 발생 시 일차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소화 용구 주변에는 적재물 등이 없이 관리되어야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하기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인증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화 용구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였다.



소화기 앞 적재물을 두어 비상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교실



소화기 앞 적재물 등 비치가 없어 비상시 사용 가능한 교실



소화전 앞 적재물을 둔 상태로 관리되어 위험 요인이 있는 학교



소화전 앞 적재물 금지표식을 하여 위험 요인이 없는 학교

앞에서 교육시설 현장의 위험 요인과 개선한 사례 등을 일부 소개했지만, 여전히 교육시설 내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과정은 교육시설 관계자가 교육시설의 안전환경 수준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과정이자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지만, 인증심사 과정 이후에도 교육시설의 관계자 및 사용자의 인식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개선과정으로 그칠 수 있다.

‘지속적 관심’은 내일의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

교육시설 안전인증의 일부 사례를 통해 확인한 현 교육시설의 안전환경은 오늘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지만, 관계한 모든 사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없이는 오늘의 안전한 환경이 내일도 안전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들의 노력과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안전한 여건을 조성하고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지원(예산, 인력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이 효율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교직원 등은 사소한 관심이라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며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심, 소통과 노력이 모이면 오늘 안전한 학교가 아닌 내일도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다. 교육시설의 안전환경을 만들어가는 건 나와 너, 우리부터 하나씩 시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신속 복구 지원

교육부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충청권 학교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피해 대비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 2 이주호 부총리가 7월 17일 건물 침수 피해를 입은 청주 운호중·고등학교를 방문, 재난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총리·교육부 차관 집중호우 피해학교 방문, 피해상황 및 재해복구 계획 등 재난대응상황 점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인해 운동장, 별관교사, 기숙사, 씨름연습장이 침수된 청주 운호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피해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고 재해복구 계획 등 재난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박재환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균하 교장을 비롯해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장, 교육시설안전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오송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호우 예보가 있는 만큼, 교육청 등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복구와 시설물 점검을 부탁드린다. 향후, 취약시설에 보다 적극적인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등 예상치 못한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7월 18일 세종 솔빛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피해상황과 재해복구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솔빛초는 집중호우로 건물 주변 사면이 유실되고 학교 경계 울타리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장상윤 차관은 “극한호우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라며 “교육 현장에서 경미한 시설 피해라도 신속하게 파악해서 복구



3 4 장상윤 차관이 7월 18일 세종 솔빛초등학교를 방문, 학교의 피해상황과 재해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5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청주 운호중·고등학교
6 건물 주변 사면이 유실되어 비상조치를 해둔 세종 솔빛초등학교



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조금 더 꼼꼼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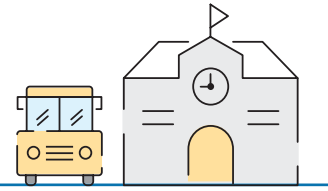
7월 13일부터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시도교육청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피해 상황 신속 파악

교육부는 7월 13일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 시도교육청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각급 학교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한편, 피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거쳐 복구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등하굣길 등 학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휴업 및 등하교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생·교직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교사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으며, 7월 26일 현재 13개 교육청의 76개 교육시설에서 운동장 침수, 담장 일부 붕괴, 펜스 파손 등의 시설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교육부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지원 등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㉔



중앙교육연수원의 ‘찾아가는 사후연수 서비스’ 이제는 연수도 무료배송 시대



1 2 대구 서평초등학교를 찾아가는 사후연수 서비스

“교원 연수에도 애프터서비스가 있네요!”
중앙교육연수원의 ‘찾아가는 사후연수 서비스’를 경험한 선생님들의 첫 반응이다. 중앙교육연수원(원장 홍민식)에서는 맞춤형 연수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사후연수 서비스’라는 새로운 방식의 연수를 처음 도입하여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연수를 받은 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인 현업적용

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연수 이후에도 체계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아울러, 추수지도(Follow-up Service)는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이를 간과하고 학습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한 피터슨(2006)의 연구 성과와 최근의 인재개발(HRD) 동향을 적극 반영하고자 이 서비스를 기획·운영하게 되었다.

현업적용도 높이는 ‘찾아가는 사후연수 서비스’ 캠핑카 타고 현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사후연수 서비스’는 이전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했던 연수의 이수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추가 연수·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연수무료배송’ 방식이다.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연수’에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마케팅 전략인 ‘무료배송’ 서비스를 접목해 신선함과 친숙함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획·추진 중인 중앙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과에서는 ‘학교경영자 미래교육 역량강화과정(2022년~)’ 이수자 중 사후연수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경영자들을 만나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영역의 전문가, 원내 교수, 연수 담당 과장 및 교육연구사 등으로 ‘연수지원팀’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사전에 연수 신청 사유와 컨설팅 요청 내용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일방적 전달 연수가 아닌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진정한 맞춤형 연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추수지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찾아가는 사후연수 서비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연수지원팀이 캠핑카를 타고 연수생이 있는 곳까지 방문한다는 점이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숙한 캠핑이라는 방식으로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연수지원팀과 연수생들 간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였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국내 캠핑인구는 약 7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이다. 그렇기에 자칫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연수’ 시간에 캠핑이라는 친숙한 소통방식을 접목하여 연수생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찾아가는 사후연수 서비스’는 신청 개시 이틀 만에 6개교가 방문을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경북 안동에 위치한 풍천풍서초등학교(교장 황영애)로, 공간혁신을 주제로 사후연수를 요청하였다. 이에 공간혁신전문가를 섭외하고 학교에서 요청한 사전 질의에 대해 꼼꼼하게 답변서를 준비하여 제공하였다. 더욱이, 공간혁신에 관심 있는 인근 학교(영남초, 남후초)까지 연수 대상을 확대하여 연수 성과를 확산하였다. 또한, 중앙교육연수원-시도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해당 학

교가 위치한 경상북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단장 이형주)에서도 단장과 담당 공무원이 동참하여 시도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국가정책 및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경영자의 고민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지능형 교육연수 플랫폼 ‘배움누리터’ 활용한 연수 추천서비스 연내 제공

‘찾아가는 사후연수 서비스’는 ‘중형무진’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다. 시간적으로 횡단(본연수) 지원과 더불어, 종단(사후연수) 지원까지 포괄하며, 공간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학교 교원을 지원함으로써 연수의 확장성을 내포하는 의미이다. 아울러, 중앙교육연수원의 차세대 지능형 교육연수 플랫폼인 ‘배움누리터’를 활용해 연수생들의 학습이력 분석에 기반한 연수 추천서비스 등도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홍민식 중앙교육연수원장은 “대면 연수생을 위한 사후연수 서비스, 비대면(원격) 연수생들을 위한 배움누리터 활용 학습이력 분석 서비스 등을 통해 교육 관계자들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중앙교육연수원은 꾸준히 ‘중형무진’할 예정이다. 2



3 4 공간혁신을 주제로 사후연수를 요청한 풍천풍서초를 방문, 학교경영자의 고민을 다각도로 분석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사고력·탐구력·토론능력 키우는 미래형 교수학습 'IB교육'

국내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가장 많은 대구는 올해 60개 기초학교를 포함해 총 92개 초·중·고교에서 IB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다. 관내 전체 455개 초·중·고교의 약 20%에 해당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관내 초·중·고교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입 5년, 대구가 주도하는 IB교육

IB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가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과정이다. 그동안 IB프로그램은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 등에서 영어로 진행되면서 귀족교육 혹은 특권교육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IB프로그램은 교육청 예산으로 IB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신청 학교와 학생들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현재 관내에서 IB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총 92개교다.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한 기초학교 60

교, 관심학교 5교, 후보학교 13교, 그리고 월드스쿨로 인증받은 14교가 대구에 있다. 전국의 IB월드스쿨이 총 20교인 점과 관내 후보학교 중 7교가 연내에 월드스쿨로 합류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대구가 IB교육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IB프로그램, 어떻게 다른가?

교육청이 IB프로그램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적합하다는 것과 '교육과정-수업-평가'가 가장 일체화된 프로그램이라는 판단에서다.

IB수업과 전통적 수업을 비교해보면 전통적 수업에서는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끊임없이 지식의 암기를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게 특징이었다. 이 때문에 질문의 주체는 교사이고 학생들은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주어진 문제를 해석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문제해결이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IB수업에서는 지식이 도구로 사용된다. 지식에 대한 내용 파악을 바탕으로



- 1 포산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IB역사 수업이 진행 중이다. IB역사는 동적·논쟁적·심층적인 탐구에 기반해 수업이 이뤄진다.
- 2 교사들이 모여 국어교과 평가와 관련된 교과협의회를 가지고 있다.
- 3 IB MYP 세계적 맥락-IB프로그램은 국제적 마인드와 세계적 맥락을 중시한다. 단위 계획 시 세계적 맥락과 연결하여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을 탐구하고, 이 같은 탐구과정을 통해 일반화된 지식을 획득하여 다른 환경과 맥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전이 가능한 역량'을 키워주도록 수업이 설계된다.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해결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학습자의 '생각하는 힘'과 '학습력'이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의 주체는 학생들이다.

또 수업내용과 활동을 바탕으로 학습의 과정과 내용을 평가받기 때문에 '교육과정-수업-평가'가 가

장 일체화된 교실수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IB프로그램을 주목한 중요한 이유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이윤경 대외협력담당관은 “도입 초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단 두 곳에서만 시작하다 보니 IB본부를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IB교육을 도입하고 있다. IB교육이 더욱 확산되어 학생들의 사고력, 학습력, 자기주도성을 키워주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포산중학교, IB월드스쿨로 한 단계 도약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포산중학교(교장 성희경)는 2020년 12월에 후보학교, 2022년 12월에는 IB월드스쿨로 인증받으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MYP(Middle Years Programme)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MYP 운영을 위해선 교사의 교수법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또 밀도 있는 수업 설계와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지도 역시 필수적이다.

김정희 교감은 “우리학교는 2015 개정 교육과
정과의 조화를 통해 학생들이 국가교육과정을 이수
하면서도 스스로의 실질적인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공인된 IB MYP를 운영하고 있
다.”라면서 중학교 프로그램인 MYP의 경우 평가방
식이 전통적인 평가방식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한다.

IB본부는 초등학교 PYP(Primary Years
Programme), 중학교 MYP(Middle Years
Programme), 고등학교는 DP(Diploma
Programme)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MYP
의 경우, 수시로 이뤄지는 형성평가와 단원이 종료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총괄평가로 학습이 관리된다.
형성평가는 총괄평가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각
평가기준에 대한 연습 및 피드백이 일상적으로 실
행된다. 각 단원 종료 시, 단원별 탐구진술을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과제가 제시되고, 과
제 결과물을 통해 이해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지도한다.

“MYP에선 학생주도의 탐구학습, 교과융합, 개
념중심학습, 그리고 학생 개별 피드백을 강조한 과정
중심평가가 강화된다. 교원의 전문성이 함양되고 학
교 교육력이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확실하지만 동시
에 교사의 일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단계 : 평가 요소 추출
(A분석+C텍스트 생산)

	평가 요소	성취 수준	평가 유형
내용 요소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 알기	1	서술형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 파악	중	서술형
	작품에 나타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중	서술형 논술형
기능 행동 요소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이 작품의 의미와 분위기 형성에 미치는 효과 평가	2	논술형
	비슷하거나 대조적인 관점의 다른 작품	중	논술형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을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 추론하고 평가	3	논술형



- 4 김연진 수석교사가 수업/평가/설계를 주제로 교내연수를 진행하는 모습
5 <예술로 여는 아침 콘서트-5월의 아침을 노래하다>와 이를 관람하는 학생들
6 4월에 진행된 <예술로 여는 아침 콘서트-음악이 일상이 되다 아무공연-봄을 만끽하Show> 공연 모습



김 교감의 말처럼 MYP 운영을 위해선 교사의
교수법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또 밀도 있는 수업 설
계와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지도 역시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학교에서 교사, 학생, 학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IB
MYP 운영 도입에 찬성하는 교사 비율이 83%, ‘IB
교육이 학생의 성장과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에
긍정한 교사 역시 92%나 됐다. 교사 입장에서는 업
무가 과중되는 일이지만 IB MYP 도입으로 학생들
의 역량 강화와 교사 전문성이 함께 성장한다는 데
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IB MYP 수업을 접한 학생들의 반응은 둘
로 나뉜다. 생각을 쥐어짜는 것과 장문의 글을 쓰고,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 과거 강의식 수업보
다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B MYP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찬성과 반대 비율은 비등하다. 찬성
을 선택한 학생들은 ‘IB수업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
을 기르고 싶다’, ‘생각을 잘 표현하고 설명하는 능
력을 성장시키고 싶다’, ‘넓은 지식과 공동체 간에
협력하는 자세를 배우고 싶다’ 등의 논리적이고 미
래지향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유지수
학생(2학년)은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는 점에서 IB프로
그램을 추천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의견을 따라가기 어렵다’, ‘생각하기 힘
들다’ 등을 호소하는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
생들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방증
하기도 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IB MYP 교육이 자
녀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라는 것에 78% 이상 동의하고 지지하는 의
견을 보냈다. ㉠

Interview



“향후 5년, 운영 경험 토대로 학교 교육력 제고의 기회로 삼겠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Q IB교육의 최대 강점은?
지식의 전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수업과 달리 IB수업은
'개념기반 탐구중심 수업'이라는 점이다. IB수업은 개념탐구를 통
해 일반화된 지식을 끌어내는 '힘'을 키워준다. 배우고 삶이 연결
되는 '전이 가능한 역량'을 키워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교육
과정-수업-평가'가 일체화된 교실수업이 가능한 점 역시 IB교육
이 가진 강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Q 관내에서 IB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전국적으로 20교의 IB월드스쿨이 있는데 그 중 대구지역의 학
교가 총 14교이다. 단순히 숫자를 넘어 학생의 성장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질 높은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학교가 그만큼 탄생했다
는 점에서 대구교육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IB학교의 확
산으로 학생들의 학습력과 교원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신장되었
는데 이는 우리지역의 학교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순도
높은 교육이 자리 잡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Q IB교육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은?
최근에는 여러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의체를 구축하
고 교원연수를 비롯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7월 현재, 대구-제주-경기-전남 4개 교육청이 IB도입을 위한 양
해각서(MOU)를 맺고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IB교육 전문가 1,500여 명이 참석하는 'IB글로벌 콘퍼런
스'가 대구에서 개최된다. 글로벌 교육동향을 익히고, 다양한 현
장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교원들의 집단 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대구에서 개최되는 만큼 다수의 교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의 교육뉴스

vol.493 2023 AUGUST

01. 올 여름방학에도 '디지털새싹 캠프' 무료 운영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 학창의재단과 함께 2023년도 여름방학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한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디지털새싹 누리집(digitalsaek.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학생은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02.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교육부는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전면 무료로 전환했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이다. 무료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연간 7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하여 약 1,300강좌(약 3만 편)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03.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선언식 개최

교육부는 7월 14일 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4개 기관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식에 맞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누리집도 기능을 개편했다.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존보다 상세히 읍면동 단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의 추가모집 인원과 입소대기 인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학기부터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더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연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보통합추진단은 효율적인 기관 수급 및 영유아 배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의 영유아 및 유치원·어린이집 현황에 관한 통합 데이터를 지자체-시도교육청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04. 직업계고 70개교,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분야 학과로 개편

올해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 학과 개편 대상으로 70개교, 96개 학과가 선정됐다. 이 중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지능형 공장(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분야의 학과 개편은 53개로, 지난해보다 약 5배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마이크로 교육과정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성된 작은 학점 단위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총 10개 과정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학과(과정)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부족한 직업계고 학과의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900여 개 학과 개편을 지원했다.

05.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이끌 '터치 교사단' 본격 운영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이끌 터치(T.O.U.C.H.) 교사단 402명을 선발하고 집중 연수를 시작했다.

선발된 터치 교사단 402명은 디지털 선도학교 대표 교사 349명과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과 교사 역할 변화에 의지를 가진 시도교육청 추천 교사 53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중등교사의 경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우선 도입되는 수학, 영어, 정보 교과교사가 참여했다.

터치 교사단은 2학기부터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주도하고 교원연수 강사 활동,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참여 등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06. 교육부가 인증한 진로체험 기관 2,621개 운영

교육부는 올해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을 받은 543개 기관을 포함해 총 2,621개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에는 77개의 신산업 분야 기관이 포함돼 있으며, 학생들이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https://www.ggoomgil.go.kr)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07. 자랑하고 싶은 우리 '농어촌 학교', 지금 바로 응모하세요!

교육부는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학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교-지자체-마을공동체가 함께 농어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한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공모 기간은 9월 8일까지이며, 전국의 면 및 도서벽지 지역 초·중·고 학교가 대상이다. 참가 신청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korec@kongju.ac.kr, 문의 ☎041-850-6086)로 하면 된다. ㉠



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 박인선 팀장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제공, 국민 건강 책임지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축산업 현장 중심의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일을 한다. 가축이 태어났을 때부터 도축, 포장, 판매까지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유통경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업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 박인선 팀장을 만나 축산물 등급판정에서부터 그동안 이 일을 통해 느낀 보람 등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세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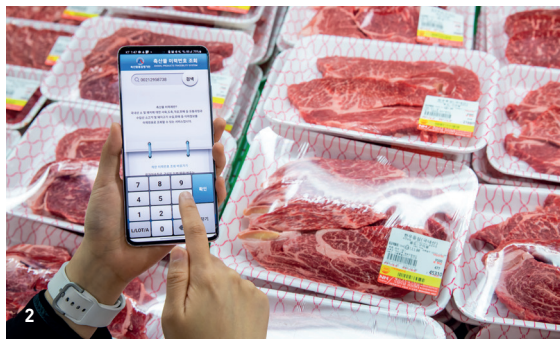
축 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 박인선 팀장은 축산현장의 최 일선에서 일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이 매일 아침 그의 꼼꼼한 등급판정 업무와 노고를 거쳐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우리 축산물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가는 일. 바로 박인선 팀장이 맡은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업무 영역이다. 올해로 축산물품질평가원 입사 16년 차인 박 팀장은 주변에서 ‘고기 박사’로 불려왔을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자부심을 가져왔다. 현장에서 일할 때는 직업 특성상 다른 직군보다 출근 시

간이 빨라 하루를 더 일찍 준비해야 할 때도 있다. 또 냉장 저온 환경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체온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고로움의 결과로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만날 때면 직업인으로서의 보람을 더욱더 느끼게 된다는 박 팀장이다. 다음은 박인선 축산물품질평가사와의 일문일답.

하나,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하는 일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먼저 전국 각지에서 소, 돼지, 말, 닭, 오리, 계란, 꿀 등 축산물의 등급을 판정하는 일을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또 등급판정 외에도 축산물의 이력 관리, 유통정보 조사업무 등 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과정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축산현장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국내산 축산물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연구 및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달걀 등급판정. 달걀을 깨트린 후에 흰자가 퍼지지 않고, 봉긋 솟아 있으면 신선한 달걀이다.
2 축산물원패스 앱. 축산물 이력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셋, 축산물품질평가사의 현장에서의 일과가 궁금하다.

전국의 작업장마다 출근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현재 근무하는 대전 충남지원은 오전 7시 출근이다. 먼저 소 등급판정을 한 뒤에 돼지 등급판정을 이어서 하게 된다. 두 품목의 판정이 끝나면 인근의 또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 계란 등급판정을 할 때도 있다. 이 업무가 끝나고 오후에는 농가 점검을 하거나 판매이력제 모니터링을 한다. 혹은 오후에 사무실로 복귀해 사무업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대전·충남지역 외에 생고기 유통이 많은 광주·전남은 새벽 5시까지 출근해야 한다. 이처럼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일과는 지역의 도매시장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전개되기도 한다.

넷, 현재 등급판정 대상의 품목별 판정 기준을 짧게 소개하면.

소는 고기의 품질을 알려주는 육질 등급, 양을 알 수 있는 육량 등급으로 각각 나뉜다. 육질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5단계다. 등심으로 판정을 하는데, 마블링과 육색 등이 좋을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다. 육량은 소의 중량과 등심 크기, 지방 두께를 보고 판정하는데 A, B, C등급으로 각각 구분한다. 돼지고기 등급은 도체 중량과 등지

방이 얼마나 얇고 두꺼운지 확인하여 정하며 1+, 1, 2등급으로 나뉜다.

현재 닭, 오리, 달걀은 원하는 업체에서 신청하는 자율 등급제로 시행된다. 닭과 오리의 품질은 육안으로 살불임 상태, 변색 등으로 판정한다. 정상적인 닭과 오리는 피를 충분히 빼고 냉각이 잘되어 피부색이 좋다. 달걀은 껍데기 상태를 확인한 후 깨진 게 있는지 빛을 비추어 투광판정을 한다. 또 깨트린 후에 흰자가 퍼지지 않고, 봉긋 위로 솟아 있으면 신선한 달걀이다.

최근 들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사에서 국내산 꿀 등급판정과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꿀 역시 현재는 자율 등급제로 시행 중이다. 양봉 농가에서 신청해 오면 생산단계부터 가공까지 모니터링하여 품질관리를 지원한다. 꿀의 성분검사와 유통기준 상향으로 국내산 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게 목표다.

다섯, ‘축산물 이력제’ 덕분에 안심하고 고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주민등록번호’와 같다고 보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흔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등을 역학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도 언제 백신을 맞았는지 등이 이력번호에 꼼꼼하게 기록·관리되고 있다. 만약 안전하지 않

은 축산물이 유통되면 이력번호를 통해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섯, 요즘에는 학교 급식도 ‘축산물원패스’ 앱으로 이력정보 조회가 더욱 간편해졌는데.

‘축산물원패스’ 앱은 유통과정의 단계를 대폭 간소화 한 시스템으로 축산물 이력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 급식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미 2009년부터 학교 급식의 식재료 품질 관리기준에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단백질이 풍부한, 양질의 육류 식단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학교 급식 담당자는 축산물 이력제도를 통해 항상 꼼꼼한 식재료 검수가 가능하다.

일곱, 축산물품질평가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그리고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조언을 한다면.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생산 농가부터 도축장, 육가공업체, 소비자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일해야 한다.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곧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능력이 무척 중요한 업무다. 또 우리 축산물의 품질을 확인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업무이므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전문적인 업무 영역은 앞으로 더욱더 확장되고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빅데이터 분석, 기계 등급판정 등 4차산업혁명의 최신 기술을 업무에 융·복합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축산환경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⑦



TIP BOX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되려면...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되려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채용하는 ‘축산물품질평가직’에 응시해야 한다. 「축산법」 제37조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일한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대상이다. 영어, 일어(JPT), 중국어(新HSK) 중 외국어 능력 시험 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또 2차 필기 전형으로는 축산학 개론, 식육학, 축산식품과 관련한 미생물학 등의 과목이 치러진다. 입사 후 현장에서 활동하려면 소, 돼지, 말, 오리, 닭, 달걀, 꿀 등 등급판정 품목별 평가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불안의 기원과 부담 없는 연대

사람은 힘과 능력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늘 자연, 식량, 전쟁 등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예컨대 “폭우가 내린다”라면 집이 무너질까 봐 불안하고, “비가 오지 않는다”라면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까 봐 불안하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불안 극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류는 이러한 불안의 요인에 대해 통제력을 키워서 그 강도를 낮추는 데에 성공했다. 문명화는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명화된 공동체에서 살더라도 불안을 통제하는 역량은 개인마다 다르다.

이 글에서는 인간이 사람인 한 겪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불안과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겪는 불안을 나누어 보고 불안과 통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겪는 불안

기본적인 불안은 공동체 차원이나 개인 차원이나 생존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생존의 불안은 사람에게 근원적이지만 시대마다 진원지를 달리한다. 원시시대에는 자연의 위력으로부터 재해, 기아, 전염병의 불안을, 계급사회에는 전쟁으로부터 패배, 상실, 이주의 불안을 겪었다.

근대 이후에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연을 통제하는 수위를 높였고 국제 조약을 통해 침략 전쟁의 위기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지만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다. 다행이라면 예측이 가능한 맥락에서 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국제 사회의 연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불안이 생겨난다. 원시시대와 농경시대만 해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농사짓는 부모의 자식은 이어서 농사를 짓고 그릇을 굽는 부모의 자식은 이어서 그릇을 구웠다. 자식이 부모 세대의 직업을 대물림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없지만 실업의 불안이 없었다.

산업화 시대가 되자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었다. 자식이 농촌에서 도시로 가서 그간 하지 않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었다. 새로운 직업을 가지려면 배우기도 하고 반복하여 숙련도를 높여야 했다. 초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동아시아에는 ‘평양직장’의 개념이 정착했다.

정보화 시대가 되고 성장이 고용을 낳지 못하는 현상이 고착되면서 실업의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되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났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이 그간 사람이 하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구직자는 취직에, 재직자는 실직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불안은 원시시대와 농경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문제가 불안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과거에는 테러라면 특정 국가에 반드시 배후가 있다고 간주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기 제조의 지식이 인터넷에 퍼져있고 필요한 재료도 비용을 지불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어떤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국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테러를 일으킬 수가 있다.

추적이 어려워지는 만큼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개인주의가 사회적으로 심화되면서 인간은 혼자 정해진 길을 따르지 않고 실패(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기회는 동시에 위기를 함축한다. 개인은 타인의 개입을 불필요한 간섭으로 간주하는 만큼 우울, 상실 등의 상황에서 정서적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 불안이 마약과 같은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연대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개인주의

사람은 유사 이래로 기본적인 불안을 겪어왔고 또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불안을 떠안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엄격한 개인주의를 고수하며 타자를 적대적으로 본다면 초능력을 가질 때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 요즘 영화에 초능력을 가진 영웅이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해결방안이 영웅에게 어울릴지 몰라도 수많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 보통 사람은 ‘이해를 추구하고 이해를 초월하는 공유 지대의 가치’를 긍정하면서 ‘연대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개인주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의 개입은 간섭이 아니라 연대이다. 아울러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개입도 간섭이 아니라 연대이다. 연대가 가능한 한 나의 불안은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둘러싼 모든 일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진원지가 된다. ②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의 개입은 간섭이
아니라 연대이다.
아울러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개입도
간섭이 아니라 연대이다.

위험교육 기반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우리 학교 안전 지키기’



위험교육 기반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란?

“뛰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안전 지도를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이렇게 무언가를 규제하고 금지하는 방법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위험 상황에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이에 안전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실생활에서 실제 위험요인들을 학생들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교육 기반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1 교육 방법 바꾸어보기: 공연형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불의 특징(빛과 열)에 대해 알아보기

안전교육은 전국 모든 학교에서 매일 이루어진다. 아침 시간을 활용한 안전교육은 물론이며 과학 및 체육수업 등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과목에서는 수업 전 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 다만, 일반적인 학교에서 실제로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극히 적으며 대부분은 PPT와 학습지를 이용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이들의 흥미도가 적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실험 중심으로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6학년 ‘연소와 소화’ 단원과 연계한 40분 분량의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QR코드)



필자의 관련 논문 보기

2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한계 극복하기: 메타버스 연계 체험 중심 안전교육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고민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었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학교에서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체험 환경의 구성이 필요한데 ‘시뮬레이터 소화기’처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구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모든 학교에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메타버스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교육이다.



소방청 화재생존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익힌 후
‘시뮬레이터형 소화기’로 체험하기

지역 내 안전체험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거나 학교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위한 교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들이 직접 위험 상황을 체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간접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었다. 가령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제작한 제페토 학교안전체험 프로그램은 ‘재난안전’, ‘화재안전’, ‘응급처치’의 세 영역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학교 내 재난 상황 속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교육부-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학생

3 위험교육으로의 전환: 우리 학교 안전 지도 만들기(안전매핑)

그러나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학생들의 실생활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이다. 위험교육 기반 체험 중심 교육의 핵심은 바로 학생들이 실제 생활하는 생활 공간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느냐이다. 이에 위험한 지역을 직접 찾아보고 지도로 나타내는 안전매핑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9년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로 통한 ‘우리 마을의 위험성 파악’

	문제점 : 유치원 손씻는 곳이 날카로운 돌로 되어있다.
	위험요인 : 모서리에 질러 아이들이 다칠 수 있다.
	개선방안 토론 및 우리의 제안
	소론 : 우리 학교에는 유치원이 같이 있는데 놀이터에 보면 이렇게 돌로 손을 찔고 가도록 하는 개수대가 있다. 그런데 이게 딱딱한 돌로 되어 있는데 모서리가 정말 날카롭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건물 내에서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모서리 보호대가 필요할 것 같다.
	효정 :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 번 설치해보면 좋을 것 같다. 모서리 보호대를 사서 설치해보자. 그리고 과학실 책상도 모서리가 저렇게 날카로운데 과학실에도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하자.

2020년 안전매핑동아리 활동 중 위험요인 발견 활동



1 레고를 이용한 스톱모션 동영상을 제작하여 친구들에게 영상 링크를 알려주었다. 레고를 이용해 우리 학교를 재현한 다음 위험한 이 전(Before) 영상과 안전한 이후(After) 영상을 주어 위험요인을 밝히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2 월별 위험요인 및 안전 요소에 대한 사진과 그림일기를 작성한 후 달력을 만들었다. 시계열 또는 계절에 따른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절 맞춤형 우리 학교 안전 달력을 제작하여 친구들에게 배부했다.



3 동아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모습을 360°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이를 모두 이어 붙였다. 그 후 위험요인과 안전 요소를 아이콘을 통해 표시하고, 누구나 다시 볼 수 있도록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연결하였다.

4 위험교육 기반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의 전환: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현재 안전교육이 최적의 방법으로 도달하는 방법은 바로 ‘위험교육 기반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이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학생 및 교사가 안전교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피 시나리오와 학교 안전 지도를 만들어보고 실제 대피를 체험하는 활동으로 학생이 주도하는 위험교육 기반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대표적 방법이다. 학생들은 4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정리하고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해 모의훈련을 통해 실제 훈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실생활 주변의 위험을 인식하며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직접 몸으로 재난대응방법을 익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㉞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동아리 학생 전문가 지원 및 모의훈련

제8회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

생성형 AI, 보조교사·학습 코치로 올바른 활용에 주목



교육부는 7월 21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함께 ‘제8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위한 토론회로 시도교육청, 대학, 관련 산업협회 전문가, 학생 등 180여 명이 참여해 2022년 1월부터 시작해 왔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교육적 활용과 윤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한 윤리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학생-교수자-학교 간 협력·소통 필요

류태호 버지니아대학교 교수는 ‘미국 대학의 생성형 AI 활용방안과 윤리적 쟁점(이슈) 대응전략’ 발표에서

“초기에는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보조적 도구에 의존해 학력이 저하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컸다. 그러나 지금은 프로그래밍, 글쓰기, 조사·연구, 학습계획 수립 등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대학들은 생성형 AI를 규제하거나 올바른 사용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윤리적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류 교수는 미국 대학 사례를 통해 교수자 대상 가이드가 생성형 AI 활용보다 부정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챗GPT 정책을 제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학생 입장에서 챗GPT 활용방안을 담은 가이드와 챗GPT 활용에 대한 개별 교수들의 자율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상은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부센터장은 성균관대 사례를 통해 챗GPT의 윤리적 활용을 제시했다. 이 부센터장은 “지난 3월 성균관대 학생 7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4% 학생이 챗GPT에 대해 듣거나 테스트해 봤으며, 53%는 수강과목 학습을 위해 사용한다고 답했다. 특히, 챗GPT가 유용한 학습도구가 될 만하다는 질문에 91.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성균관대는 지난 2월 처장단 회의인 챗GPT 연구위원회와 대응팀(T/F)을 구성하고 AI 기술의 학습 접목 모델 연구와 챗GPT의 교내 확산에 신속히 대응해 왔다. 3월 30일에는 챗GPT 종합안내

누리집(chatgpt.skku.edu)을 개통하고 챗GPT 대응 중간시험 가이드라인, 챗GPT와 학습윤리 영상 등을 제작해 올렸다. 이 과정에서 학생, 교수자, 학교는 유기적인 협력 주체로서 서로 소통해 나갔다. 학생들은 챗GPT 활용의 실천 주체로서 학습윤리 영상 등 콘텐츠 개발에 직접 참여했으며, 교수자는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학교는 유관 팀을 모아 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민원 예측과 사전 대응을 맡으면서 챗GPT의 윤리적 활용을 위해 노력했다. 이 부센터장은 “AI의 윤리적 활용은 교수자와 학교가 학습 과정과 결과에 더 관심을 갖기를, 더 정교하게 설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마지막으로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윤리적 쟁점과 주체별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소장은 “생성형 AI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학습 주도성 감소,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부는 2022년 8월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으나, 생성형 AI 등 급격한 기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래교육연구소에서 생성형 AI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교수자·학습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 소장은 “생성형 AI는 교수자에게 보조교사로서 학생상담과 생활지도, 연구 활용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학습자에게는 학습 코치이자 개인 튜터로서 학습 목표 설정부터 평가 및 피드백까지 가능하다.”라고 제시했다. 특히, 정 교수는 생성

형 AI를 교육으로 활용할 시 △주도성 △안전성 △정확성 △창의성 △정보보호 △책임성 △다양성 △공공성 등 8가지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주목하면서도 윤리적 활용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강조했다. 도재우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생성형 AI는 학생들을 AI의 직접적 사용자로 만들고 있다. 이는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활용을 넘어 AI 윤리를 학습할 수 있는 도구로서 디지털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희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는 “챗GPT의 기술적 원리를 이해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답변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②

* 생성형 AI 활용 실태 조사 주요 내용

미래교육연구소에서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교사(300명), 학생(600명), 학부모(800명) 총 1,70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 79.2%, 교사 61%, 학부모 46% 순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특히, 수업 중 생성형 AI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교사가 38.3%, 학생이 60%가 사용한다고 답했지만, 사용 빈도로는 교사가 81.2%로 학생(66.3%), 학부모(43.5%)보다 높았다. 생성형 AI를 사용한 후에는 ‘사용이 편리하다’, ‘답변 내용이 흥미롭다’, ‘답변 내용이 유용하다’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생성형 AI의 향후 활용성에 대해서는 ‘자료수집 및 검색’, ‘데이터 생성/처리’, ‘이미지/영상 만들기’, ‘외국어 학습 보조’, ‘코딩/프로그래밍 등의 정보교육’, ‘글쓰기(글 수정/교정)’, ‘교과 학습 보조’ 순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의 문제 심각성으로는 저작권 침해, 허위정보 확산과 오개념 발생, 창의성 역량 감소, 부정행위, 개인정보 유출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교사는 향후 활용성과 문제 심각성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했다. AI 부정행위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80%를 넘었다.

REPORT
01.

신나는 여름방학, 무료로 무제한 전자책 이용하세요~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과 교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전자책을 구독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롯데장학재단, 예스24의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아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이하 'e-북드림')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으로 시작되어 독서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기존 1인당 월별 구독 가능 권수는 5권이었으나 2023년부터 무제한으로 변경되어 학생들과 교원이 제약 없이 마음껏 원하는 만큼 독서를 할 수 있다.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는 올해 7월 1일에 개시되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중 운영되며 사이트(<https://bookdreamlotte.yes24library.com>)에서 해당 지역으로 접속 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학생, 교원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도 이용

가능하다. 학생과 교원은 별도의 신청이나 회원가입 없이 각 시도교육청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로그인 정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 드림' 누리집(<https://kdream.or.kr>) 또는 '꿈 이음' 사업 누리집(<https://educerti.or.kr>)에서 별도 신청하면 된다.

전자책의 장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휴대와 소장의 간편함, 종이책에 비해 저렴한 것 등이 있으며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한다. 음성지원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속도, 목소리, 톤을 설정할 수 있으며 책갈피, 메모, 글씨 크기 조정, 하이라이트 밑줄 치기 등의 기능도 지원하여 종이책이 갖지 않은 여러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나의 계정으로 최대 5대의 기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교원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7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e-북드림, 즐거운 독서생활 챌린지'를 개최한다. 전자책을 읽고 학생들은 독서활동 영상 콘텐츠를, 교사는 수업 사례 보고서 및 영상 콘텐츠를 제출하며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상,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미뤄졌던 독서활동을 통해 디지털 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면 어떨까?

REPORT
02.

영어에서 코딩까지... 사교육 잡는 무료 교육사이트는 어디?

지자체와 정부기관 사이트를 찾아보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외국어부터 코딩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찾을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K-MOOC(www.kmooc.kr) 무크(MOOC)는 강의실에 수용된 학생만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에서 청강만 가능한 온라인 학습 동영상으로 변화하고 현재는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K-MOOC는 한국식 MOOC로 2023년 7월 현재 온라인 무료 강좌가 1,870개를 돌파했고, 대학과 공공기관 및 해외 기관 총 170개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런(slearn.seoul.go.kr) 서울런(Seoul LEARN)은 서울시 거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청소년 및 학교밖·다문화가족·북한이탈 청소년이라면 만 6~24세(재수생 포함)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초등학생에게는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게임·만화 등 연계 콘텐츠를, 중·고등학생에게는 고품질 우수 교과 강좌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에게는 중·고졸 검정고시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 밖에도 유망 직업 소개, 창의 콘텐츠, 자격증, 어학, 취업, 공무원, 한국어능력시험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www.gseek.kr) 지

식(GSEEK)은 도민의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평생학습포털 서비스로 온-오프라인 학습 외에도 화상학습, 부모 배움, 청소년 배움, 평생학습공간 활용, 배움 기부제, 도민 온라인 강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부터 프로그래밍, 코딩까지 다양한 주제를 학습할 수 있다.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늘배움은 전국의 평생교육정보, 학습콘텐츠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학습 종합포털이다. 대학, 공공기관, 사설기관에서 만든 1만5천여 개의 온라인 강좌 외에도 평생교육 관련 통계 및 학술정보도 제공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교육센터(kacademy.kisti.re.kr) KIST는 국내외 과학기술정보, 데이터처리를 위한 첨단 컴퓨팅 자원, 데이터 유통을 위한 초고속 연구망, 데이터 안전을 책임지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AI와 SW, 데이터 기반 미래 분석, 데이터 활용·확산을 위한 과학기술 지식인프라를 제공한다. 특히 컴퓨팅 언어, 빅데이터 수집·처리, AI 등 데이터과학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강좌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②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언어 속의 놀이

요한 호이징하(Johan Huizinga)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호모 루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문화론>을 쓴 조흥운 작가는 한국 민중문화의 특성 중 하나를 ‘놀이’로 꼽았지요. 그는 일 속의 놀이, 여가 속의 놀이, 신앙 속의 놀이로 전개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언어 속의 놀이도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말을 소재로 즐겁게 노는 것을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재미를 위해 언어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형하거나 반복하는 말의 표현, 동음이의어를 이용하는 표현 방법 등 언어유희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10년 전 여름방학이 끝난 후에 이렇게들 말하곤 했습니다. ‘나 방콕에 다녀왔어.’ 방에 콕 박혀 있다는 뜻과 태국의 수도 방콕이 동음이의어라서, 집에만 머물렀던 자신의 신세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언어유희였지요.

최근에는 ‘슈크림 도어가 열립니다’, ‘오즈의 맵소사’, ‘빛과 송금’, ‘닭큐멘터리’ 등 언어유희 닉네임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빔면 중 ‘팔도네넴면’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주목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요. 상품이나 생활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 속에서도 언어유희는 등장합니다. 고전 춘향전에서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비 한 대 먹고 싶다는 표현으로 신체 부위인 갈비와 음식 갈비를 이용하여 해학적 언어유희를 사용했지요.

언어유희는 인간의 놀이본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유희를 즐기시나요? 

 **꾸미가 알려DREAM**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체험활동 여기서 확인해요!**



크레존 창의적 체험활동은 여기서!

문화/공연전시, 역사체험, 동아리/봉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확인해 보세요!

 **www.crezone.net**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 진로직업체험
· 고교학습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메뉴

진행중 > 원하는 체험 선택 > 홈페이지 이동하여 개별 신청

크레존 진로직업체험은 여기서!

과학기술, 인문사회,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직업 체험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www.crezon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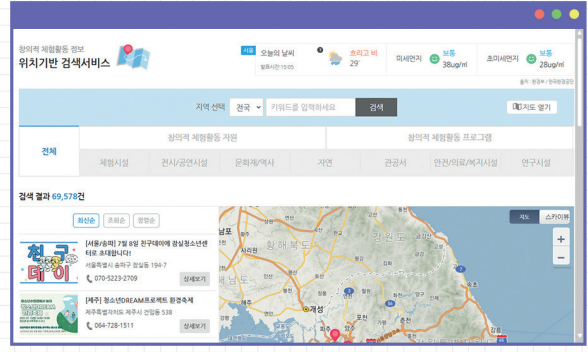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 진로직업체험
· 고교학습지원

진로직업체험 메뉴

진행중 > 원하는 활동 선택 > 홈페이지 이동하여 개별 신청

우리 지역에 있는 체험활동을 한눈에!

위치기반 검색 > 지역선택 > 키워드, 카테고리 등 선택 검색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로
이번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 보세요!**

